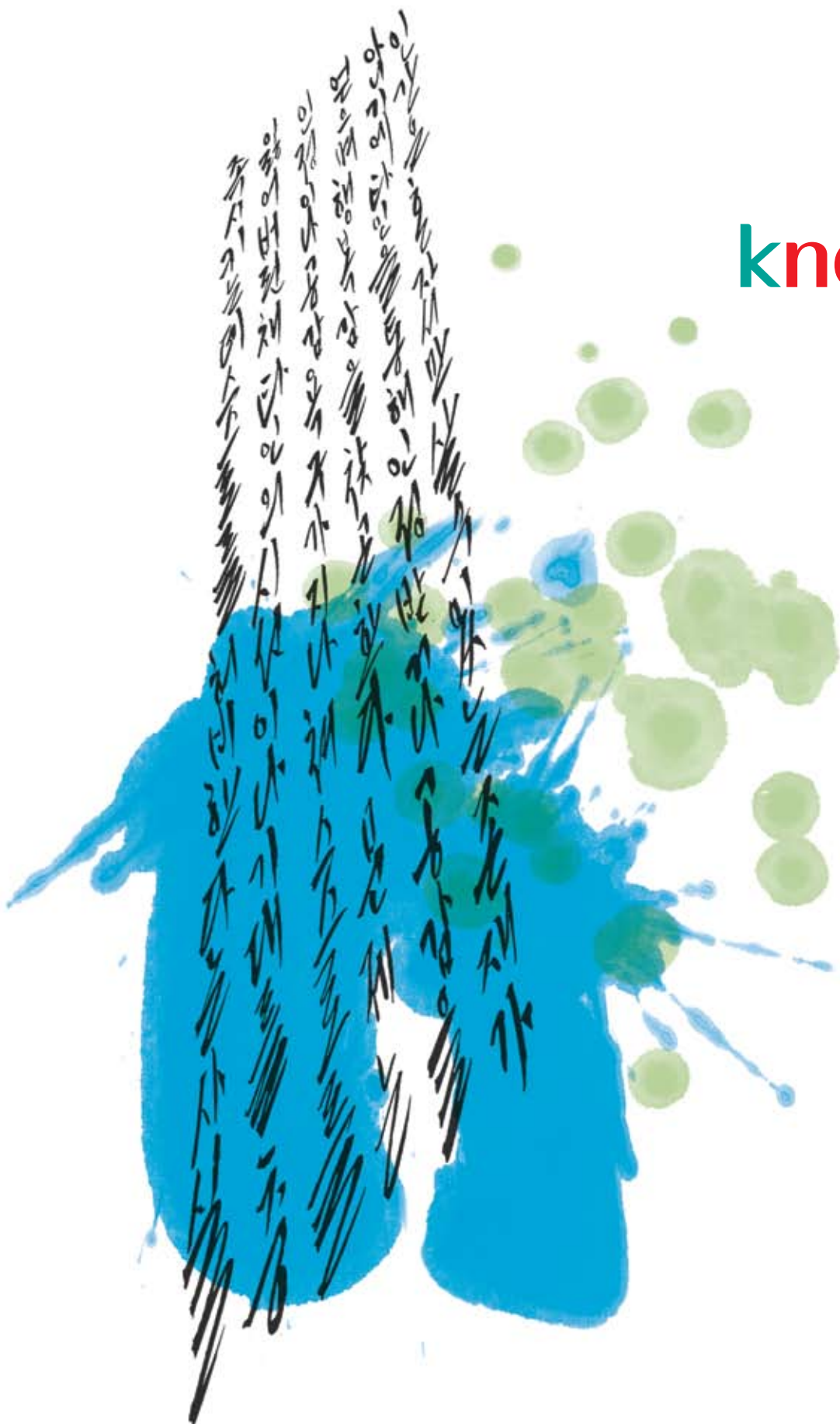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07

JULY 2015
vol.07
MONTHLY MAGAZINE

지금
여기에
진지하게
사는것
그자체가
충만세

미움받을
용기중에서
새터 이상현 

표지 작가소개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해를 품은 달〉〈타짜〉〈국순당 우국생, 백세주〉〈교촌치킨B〉
현.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서예문화예술학과 초빙교수
사. 한국 미술 협회 이사, 한국 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모두에게
사랑
받아야
행복한 것일까?

Is it happy
when being
loved
by everyone?

타인의
시선대로
살아간다는 것

얼마 전 TV에서 방영한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드라마가 있다.

상위 1%의 기득권층 삶을 풍자한 이 블랙 코미디 드라마는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주목받고 싶은 본성을 건드린다.

드라마 속 한인상(이준 분)의 부모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혹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상위 1%의 삶을 보여주는데 반해, 서봄(고아성 분)의 부모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은 하지만 자신의 삶의 방식에 따라 살아간다. 드라마는 결국 '스스로가 선택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막을 내린다.

비단 드라마에서만은 아닐 것이다. 대부분의 우리들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네모난 상자 안에 스스로를 가둔 채 살아가곤 한다.

인간은 혼자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타인을 통해 인정받거나 공감을 얻으며 행복감을 찾곤 한다. 문제는 인정이나 공감 욕구가 지나쳐 스스로를 잃어버린 채 타인의 시선이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스스로를 허비한다는 사실이다.

굳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인간은 타인으로부터의 반응을 필요로 하는 존재다. 나를 봐주고 달래주는 타인의 존재는 평생을 걸쳐 필요하다. 하지만 타인으로부터의 반응이 반드시 인정이나 칭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최근 베스트셀러로 주목받고 있는 '미움받을 용기'에서 저자는 '그 사람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말라'고 말한다. 저자는 남이 나에게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착한 사람 컴플렉스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 연설문은 매우 유명하다. 그의 연설은 잠자고 있는 삶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나가게 해주는 힘이 있다. 그 중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는 대목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미움 받을 용기를 스스로 내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호평 받는 사람이 되고자 애쓰는 사람에게서 우리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찾아볼 수 있다.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좋은 사람 콤플렉스’라는 책에서는 착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9가지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책에서 말하는 좋은 사람의 9가지 콤플렉스는 ①완벽해야 한다 ②바쁘게 살아야 한다 ③침묵은 금이다 ④화는 꼭 참아야 한다 ⑤불합리한 추론에 근거한다 ⑥선의를 거짓말을 한다 ⑦조언을 일삼는다 ⑧도우미가 되기를 자청한다 ⑨아픔을 감싸주려 한자로 풀이하고 있다.

물론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착한 사람들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착한 사람은 그 자체로 빛나기도 한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감추고 애쓰다 보면 ‘행복하지 않은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좌절하고야 만다.

모두에게 사랑 받을 수 없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은 자존감이 부족하고 타인과의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

‘상처받을 용기’의 저자 이승민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문의는 그의 저서를 통해 단순히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는 자존감을 지킬 수 없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단호하게 맞설 때, 그리고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자각할 때 자존감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무조건 남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누군가에게 미움 받는 것이 두려워 모든 문제에 대해 항상 나를 탓하는 것도 문제다. 매번 착하다는 칭찬을 원하기보다는 때로는 미움 받을 용기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미움 받을 용기를 갖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자

얼마 전 막을 내린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라준모(차태현 분)는 톱 가수 신디(아이유 분)에게 “연예인이 유명세를 갖고 있지 않느냐. 유명세도 일종의 세금 같은 것이다. 물질적인 것이 아닐 뿐이지”라고 말한다. 이어 라준모는 “불편한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건 내야하는 세금이다”라고 덧붙인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미움 받을 용기를 갖는 것은 행복해지기 위한 세금이라고.

턱낮한 스님은 ‘젊은이들에게 띄우는 편지’를 통해 이런 메시지를 전한다.

‘노’라고 거절하기가 무척 힘들지만 여러분은 자신을 온전하게 간직하기 위해 ‘노’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삶을 계속하면서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턱낮한 스님의 말처럼 ‘노’라고 하는 용기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아랍의 격언 중 ‘모든 이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려는 이는 슬픔으로 죽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을 살다보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기도 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이 사람한테는 잘한다고 한 일이 다른 사람한테는 섭섭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 어떤 성인군자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대신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는 일에 집중해 보는 것은 어떨까.

그로 인해 얻는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일 것이다.

타인으로부터의 시선에서 벗어나, 세상으로부터의 판단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그것을 위해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미움 받을 용기를 갖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행복해지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바로 지금,

나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집중하자.

마치 춤을 추듯 찰나에 온 마음을 집중해 보자.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07월호 vol.07
MONTHLY MAGAZINE, JULY 2015



08 행복을 주는 사람 | 김원일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가. 중학교 교사에서 정년퇴임 후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원일 씨는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스스로의 보람을 찾고, 누군가에게 도움 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지요.”



30 연금포커스 | 은퇴 후 귀농·귀촌 ‘충분한 사전준비’ 있어야

귀농, 전원생활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귀농·귀촌 박람회가 열리고 있으며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베이비부머 이외의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



34 경제 이슈 | 하반기 세계경제의 위기 및 기회요인은?

올해도 절반이 남은 가운데 지난 상반기 글로벌 경제 성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부진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하반기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회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46 지구인이야기 | 시니어의 어려움 “시니어에게 물어봐”

싱가포르의 안정적인 국가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인력을 줄이는 대신, 시니어 인력을 획기적으로 활용해나가고 있다. 특히 시니어들이 겪는 어려움을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OPENING



- 02 **행복을 위한 질문**
모두에게 사랑받아야 행복한 것일까?

INTERVIEW



- 08 **행복을 주는 사람**
“하고 싶은 일하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죠”

INFO GRAPHY



- 1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연금저축 현황

행복미래설계



- 14 **H씨의 행복설계**
안정적인 노후설계를 위해서는 소득·절·벽·구·간의 관리가 중요
- 18 **지식 플러자**
상속세 재원, 어떻게 마련할까?
부부간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디까지 법률적인 효력이 있을까?
시니어를 위한 카드
- 24 **Do! Dream**
영화, 꿈을 꽃피우다
- 26 **Anti aging**
행복균을 몸 속에 ‘프로바이오틱스’
- 28 **Alone, together**
나를 채우는 특별한 여름휴가

연금이슈포커스



- 30 **연금 포커스**
은퇴 후 귀농·귀촌 ‘충분한 사전준비’ 있어야

경제 TREND



- 34 **경제 이슈**
하반기 세계경제의 위기 및 기회요인은?
- 38 **시장이슈**
연준의 금리인상, 세계 금융시장의 새로운 폭풍일까?
- 42 **부동산이슈**
주택시장의 세대교체 본격화되나

GLOBAL



- 46 **지구인 이야기**
시니어의 어려움 “시니어에게 물어봐”

FUTURE



- 48 **은퇴, 버킷리스트**
은퇴 후 제주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5년 7월호 vol.07 (통권 7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라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일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발행일 2015년 7월 7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정승희 수석연구원, 박지홍 연구원, 하나은행 | 김한성 팀장, 최호재 팀장, 외환은행 | 김홍균 수석전문역, 조선영 차장, 하나대투증권 | 이정철 실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유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김원일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

“하고 싶은 일하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죠”

행복한 인생을 꿈꾸는가.

중학교 교사에서 정년퇴임 후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원일 씨는 말한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스스로의 보람을 찾고,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지요.”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일까? 물론 돈, 명예, 권력, 영향력은 여전한 성공의 중요한 잣대다. 여기에 덧붙여 돈의 유무, 사회적 지위와는 상관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유롭게 사는 삶, 스스로에게는 즐거운 일이 되고, 다른 누군가에겐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이 어찌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이들이 바라는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아닐까. 이런 조건이라면 70을 훌쩍 넘은 김원일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김원일 씨의 하루는 “오늘은 어디로 가세요?”라며 던지는 아내의 아침인사로 시작한다. 그도 그럴 것이 중학교 교사에서 정년퇴직한 후 서울특별시 과학전시관, 국립과천과학관, 관악시니어클럽, 관악산 숲가꿈, 서울대공원 등에서 숲해설사, 곤충해설사, 동물해설사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어디로 가느냐는 아내의 인사는 어찌면 그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일종의 푸른색 신호 같은 것이다.

숲해설사에서 동물해설사까지

생물교사에서 숲해설사, 곤충해설사, 동물해설사로 변신해 인생2막을 시작한 김원일 씨. 교사에서 해설사로 방향을 바꿀 수 있었던 데는 그의 전공도 영향을 미쳤지만, 평소의 관심과 애정, 성실한 노력이 있기에 가능한 변신이다.

평소 분재(盆栽), 즉 나무나 화초에 화분을 심어 줄기와 가지를 아름답게 키우는 일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집 옥상에 비닐하우스를 만들 정도로 식물 사랑이 남달랐다. 관련 서적을 탐독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들을 찾아다니며 전문지식을 쌓기도 했다. 국가공인 분재전문가관리사 자격증도 딸 정도다.

“동료들은 제가 퇴직하면 분재전문점을 차릴 것으로 예상했었죠. 그러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숲을 해설하는



일은 자연을 사랑하는 저에게 딱 맞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06년 2월 정년퇴임 후 우연한 기회에 서울시 과학전시관에서 숲해설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서울시 과학전시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관악시니어클럽에서 숲해설사에 도전해 활동영역을 넓혔다.

“숲해설사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식물은 물론 동물에 대한 이야기가 빠질 수 없었고, 식물과 동물을 아울러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11월 우연히 지인을 통해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 모집이야기를 듣게 된다. 동물해설사는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동물의 특징과 생태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하는 사람이다.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터라 자연스럽게 2012년 2월 곧바로 지원했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다.

“교재가 백과사전만큼 두껍더라고요. 그걸 다 공부하려니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만큼 힘든 공부였고, 어려운 시험이었죠.”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쌓아온 경험, 꾸준한 노력이 가져온 당연한 결과였다. 드디어 2012년 4월 서울대공원 동물해설사로 활동을 시작하게 된 그는 어린이동물원에 배치를 받아 해설 요청이 들어오면 직접 교재, 참고자료, 표본도 정성껏 준비해 아이들에게 동물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사실 동물에 대한 공부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학교 생물교사 시절 TV에서 ‘동물의 왕국’을 본 학생들이 동물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한다. 평소 무엇이든 주어진 역할에 대해 성실히 노력해 온 그는 이번에도 역시 동물 공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TV가 없던 시절 김원일 씨는 당시 TV를 볼 수 있었던 만화가계를 찾아다니며 프로그램을 시청하기도 했고, 관련 서적을 찾아서 스크랩하는 등 전문지식을 쌓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특유의 성실함은 은퇴한 지금까지도 이어져 배우고, 연구하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다.

또 최근에는 동물, 식물 공부뿐 아니라 ‘어린이 눈높이 교육’을 위한 방법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해설사로서의 활동은 주로 어린이들을 상대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학생만 가르치다가 어린이들을 대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따로 어린이들의 언어, 문화를 몸소 익히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평생을 성실함으로 내딛다

그의 일에 대한 열정은 젊은 사람 못지않다. 이러한 뜨거운 열정을 변함없이 실천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생 지키고자 했던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였다. “평소 아버지께서는 주어진 역할, 해야 할 일에 대해 꾀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늘 강조하셨어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루려는 개척정신,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은 그가 일평생 지켜온 삶의 철학이다.

또 지금의 그를 만든 것은 ‘긍정적 사고방식’도 한몫했다. 불평, 불만으로 오늘을 버티기보다는 긍정적 사고로 오늘을 즐기라고 조언한다.

“살아보니 부정적인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일에 비판, 불만만 늘어놓는 삶을 살게 되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매사에 접근해야 주변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고, 좋은 기회들이 생기는 법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덕분에 그는 과거 속의 후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현재와 미래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단, 긍정적이라고 해서 항상 잔잔한 호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인생사가 그렇듯 가끔 비바람이 몰아쳐 거친 파도로 힘들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조용히 옥상 비닐하우스로 향한다. 식물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다고 한다. 그리고 요동치던 마음이 어느새 잔잔한 평온을 되찾기도 한다고.

행복에 대해서

퇴임하고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늘 바쁘게 지냈다는 김원일 씨.

“날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행복입니다.”

밝은 표정, 환한 피부, 열정 가득한 말투는 그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만족감, 거기에다 자연과 부대끼며 살고 있기에 그는 삶을 긍정할 수밖에 없는 듯하다.

“은퇴 후 활발한 활동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평생 쌓아온 지식을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나누는 일은 참 보람된 일입니다. 스스로는 만족감을 얻고, 상대방도 즐거울 수 있기에 모두가 행복해지는 일이니깐요.”

동물, 식물 등 자연과 평생을 함께 한 덕분인지 노장의 몸에 벤 긍정의 에너지, 심플한 생활습관, 순수한 마음은 옆에 있는 이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가르침이 있었다.

그의 열정은 여전히 ‘ing’

앞으로도 그는 자신의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지금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요즘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방문이 늘어나 외국어로 숲과 식물, 동물들을 설명하고 싶은 욕심도 생긴단다. 1년 후 기대해 봐도 되겠냐는 질문에 기억력이 예전같이 앓다며 손사래를 치지만 그의 맑은 눈동자에선 이미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듯했다.

인생 2막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나눠달라고 했다. 그는 “관심 분야가 있으면 확실하게 배워서 온전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봐야 해요. 그래야 다른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어요. 동물해설가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관련 지식을 꾸준히 경험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부지런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뜻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값진 행복을 실천하고 있는 동물해설사 김원일 씨의 도전은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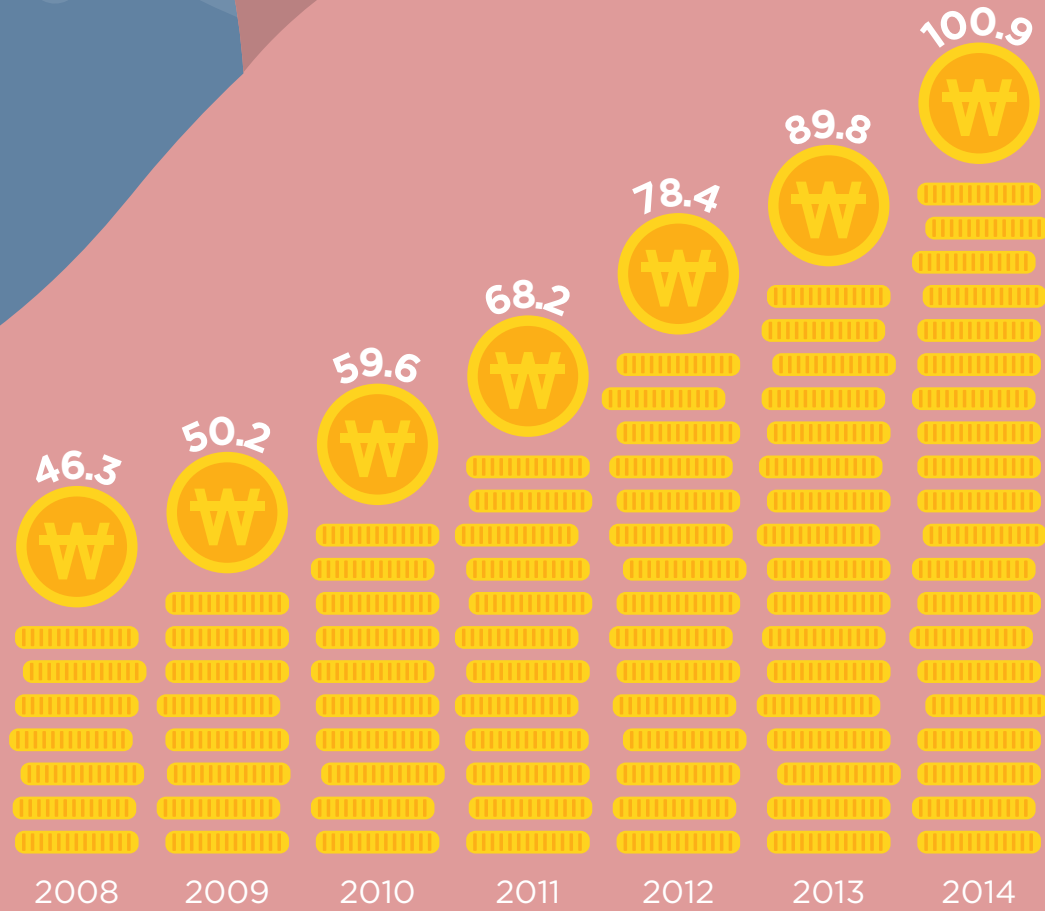


연금저축 현황

연금저축의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유지율이 낮아 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지율의 제고가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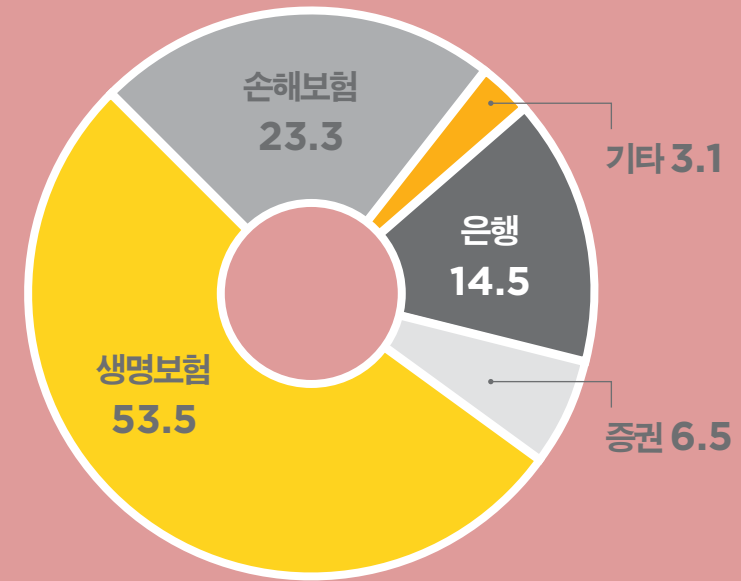
01. 총적립금 규모 추이

단위 : 년, 조원
자료 : 금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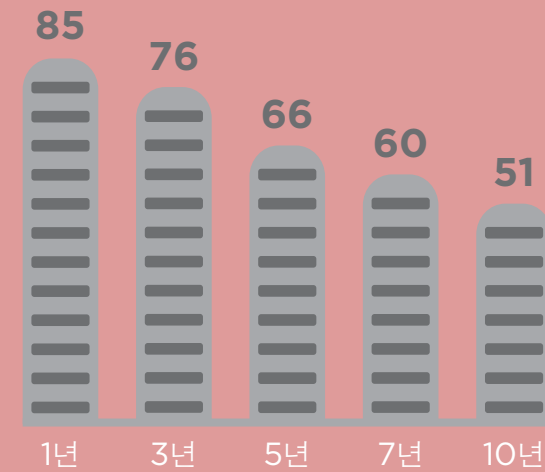


02. 금융업권별 적립금 규모

단위 : 조원
주 : 2014년 기준
자료 : 금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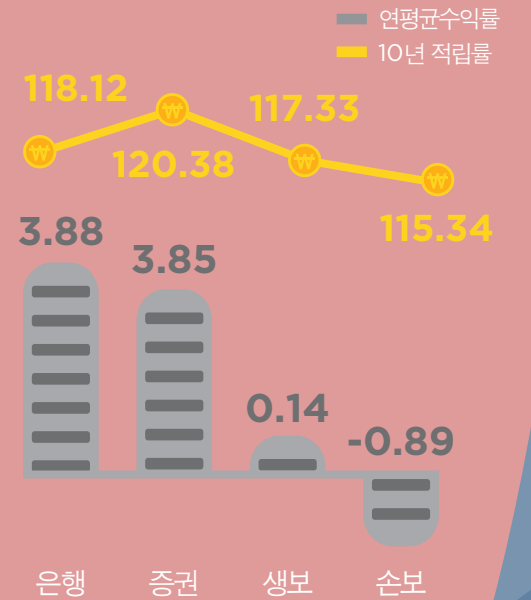


03. 연금저축 유지율



단위 : %
주 : 금융권별 유지율 평균
자료 : 각 금융협회

04. 연금저축 수익률 및 적립률



단위 : %
주 : 2014년 기준
자료 : 각 금융협회

SAVING
MONEY

안정적 노후 설계를 위해서는 소득·절·벽·구·간의 관리가 중요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H씨는 공무원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이들 부부는 주말부부라 자녀들은

현재 친정집에서 양육한다.

현재 전세 2억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수입은 부부 합산 600만원이다.

오랫동안 맞벌이가 가능하다는 점과 연금 등

노후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예상되지만 은퇴 전후

자녀 목돈 지출이 고민이다.

H씨의 안정적인 노후 설계의 방향은 무엇일까.



노후 안정적인 현금흐름 예상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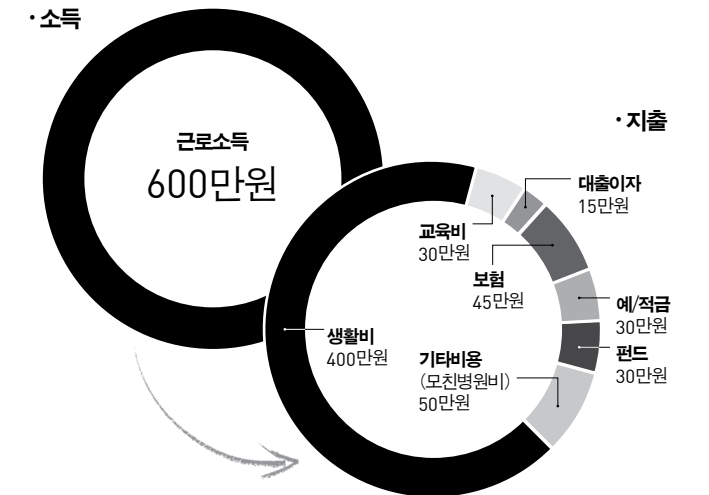
자녀 목돈 지출이 고민

공사에 재직하고 있는 H씨(만 34세)는 공무원인 부인(만 33세)과 슬하에 5살과 3살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남편과 부인이 각기 다른 지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주말부부라 자녀들은 현재 친정집에서 양육하고 있다. 현재 H씨는 전세 2억원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 40세 정도에는 아파트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인은 회사가 제공하고 있는 사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현재 이들 부부의 금융자산은 예금 5,000만원, 연금보험(변액) 1,000만원이 있고, 부채는 신용대출 5,000만원이 있다.

한편 수입은 부부 합산으로 근로소득 600만원이 있으며, 지출은 생활비 400만원, 교육비 30만원, 대출이자 15만원, 보험 45만원, 예/적금 30만원, 펀드 30만원 등이 있으며, 기타비용으로 모친병원비 50만원이 있다. H씨 부부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맞벌이가 가능하고, 은퇴 후에 받을 연금 등을 감안해 보면 노후는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은퇴 전후에 들어갈 자녀의 대학교육비(1인당 4,000만원 예상)와 결혼비용(1인당 1억원 예상) 등을 생각하면 현재 자산 포트폴리오의 운용에 고민이 생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01. 아파트(전세)	2억 원
	02. 예금	5,000만 원
	03. 연금보험	1,000만 원
· 부채	01. 신용대출	5,000만 원
· 순자산		2억 1,000만 원



60세에 은퇴할 예정이며

노후 생활비로 월 300만원을 원하는 상황

H씨 부부는 은퇴시기를 60세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85세까지의 미래설계를 원한다. 현재 부부가 각기 다른 지방에 근무하면서 생활비와 모친의 병원비, 친정에 맡긴 자녀의 양육비 등으로 500만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다. 하지만 은퇴 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부부만 남게 되면 300만원 가량의 생활비면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H씨 부부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사적연금으로 노후에 대비하고 있다. H씨가 65세부터 수령하는 국민연금의 경우 월 80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은 60세부터 69세까지 10년 동안 각각 월 55만원, 100만원 정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부인이 65세부터 수령하게 될 공

무원연금은 월 200만원 수준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선 H씨의 미래설계 준비 상태를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²⁾ 흐름으로 살펴보자. 40세에 약 3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전세자금을 제외하고 약 1억원의 주택담보대출³⁾이 필요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49세까지 여유자금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또한 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인 52세 이전까지는 자녀 대학등록금까지 내야 하므로 여유자금을 챙기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의 대학 졸업 후 첫째 자녀 결혼 전인 58세까지는 여유자금 마련에 숨통이 트지만 은퇴 이후 60~64세 사이에는 또 다시 소득절벽구간을 만나게 되고 59세와 61세 즈음에 자녀들의 결혼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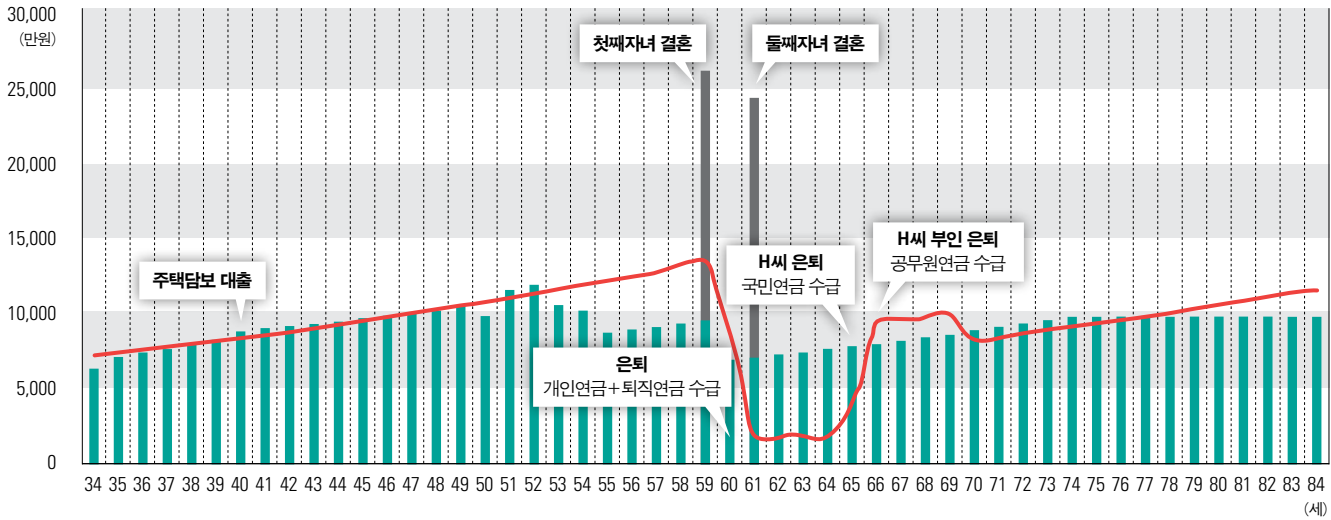
1) 2014년 기준 공무원연금 평균 수령액은 234만원이나, 향후 감액 가능성을 감안해 본 분석에서는 200만원으로 가정

2) 물가상승률은 2.5%를 가정했으며, 수입은 근로소득과 연금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기타비용 등이 포함. 자산부채 현황에서 예금과 신용대출 규모가 같으므로 불필요한 이자 납입 방식을 위해 신용대출을 예금으로 상환하는 것을 가정.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하여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3) 주택담보대출은 이자율 4%에 1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가정

인해 목돈이 나가게 되어 자금사정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여유자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결국 생애 전체로 볼 때 40세부터 58세까지 약 1억원의 금융자산을 확보하는 반면, 59세부터 76세까지 자녀 결혼 비용 등으로 약 2억6,000만원이 모자라며, 85세까지 약 2,000만원을 다시 확보할 수 있어 최종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산출하면 약 1억4,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자녀의 결혼비용 조정을 통한 소득절벽구간 극복

H씨 부부의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현금흐름이 비록 원활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자녀의 대학교육과 결혼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부부는 자녀의 대학교육비로 8,000만원, 결혼비용으로 2억원을 생각하고 있다. 반면 비록 예금 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대출도 5,000만원을 받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매년 발생하는 여유자금에 국한된다.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자녀 성장에 따른 교육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목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목돈마련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로는 소득절벽구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은퇴 전까지 금융자산을 9.73%로 운용하고 61세에 둘째 자녀가 결혼하는 시점에 아파트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 받는다면 생활비 등 지출의 조정 없이 노후 생활이 가능하며 이후 아파트 잔존가치 2억원을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운용수익률을 9.73%로 설정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담보대출 규모를 2억원으로 늘리고 6.00%로 운용해 이후 아파트의 잔존가치 1억원을 자녀에게 상속하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로는 자녀의 결혼비용을 다소 낮추고 일시적으로 생활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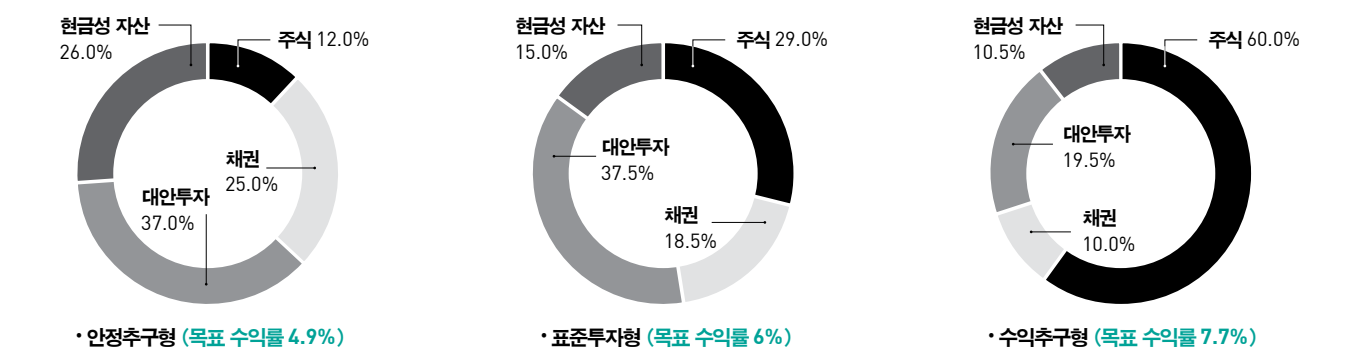
의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우선 자녀 당 1억원인 예상 결혼비용을 6,000만원으로 낮춰 목돈에 대한 부담을 다소 줄인다. 물론 자녀 결혼비용을 하향 조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주택담보대출 상황이 끝나고 두 자녀가 대학을 졸업한 후 54세부터 본격적으로 여유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가 되는데 은퇴까지 6년 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54세부터 60세까지는 일시적으로 생활비를 줄여 여유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다. 자녀의 결혼(30세 가정)시기와 부부의 은퇴시기가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더욱 그럴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고생도 잠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65세가 되면 경제적 문제에 관한 한 어려움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된다. 현금흐름이 좋아지면서 예상 노후생활비인 300만원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 서술한 경로를 따라가면서 여유자금의 목표수익률을 2.50% 정도로만 유지하더라도 훗날 자녀들에게 1억원의 금융자산과 3억원의 아파트를 상속해 줄 수 있다.

앞선 2가지 방법 중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볼 때 두 번째 방법이 더 나아 보인다. 자녀 결혼비용 때문에 노후에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것보다는 결혼비용을 다소 낮추고 지출을 일시적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현재 하나대투증권

에서 제시하고 있는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에 따르면 H씨의 목표수익률인 2.50%는 안정추구형(4.9%)보다 낮은 수익률로 위험을 크게 감내하지 않아도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H씨의 경우 연금자산이 워낙 충분하기 때문에 본 분석에서 제시한 방법 이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생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현금흐름 상 자금 부족이 발생하는 시기가 은퇴 전이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65세 이후에는 잉여자금이 계속해서 생기게 된다. 앞서 두 가지 방안에 추가적으로 지출을 줄이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면 위험을 크게 감내하지 않더라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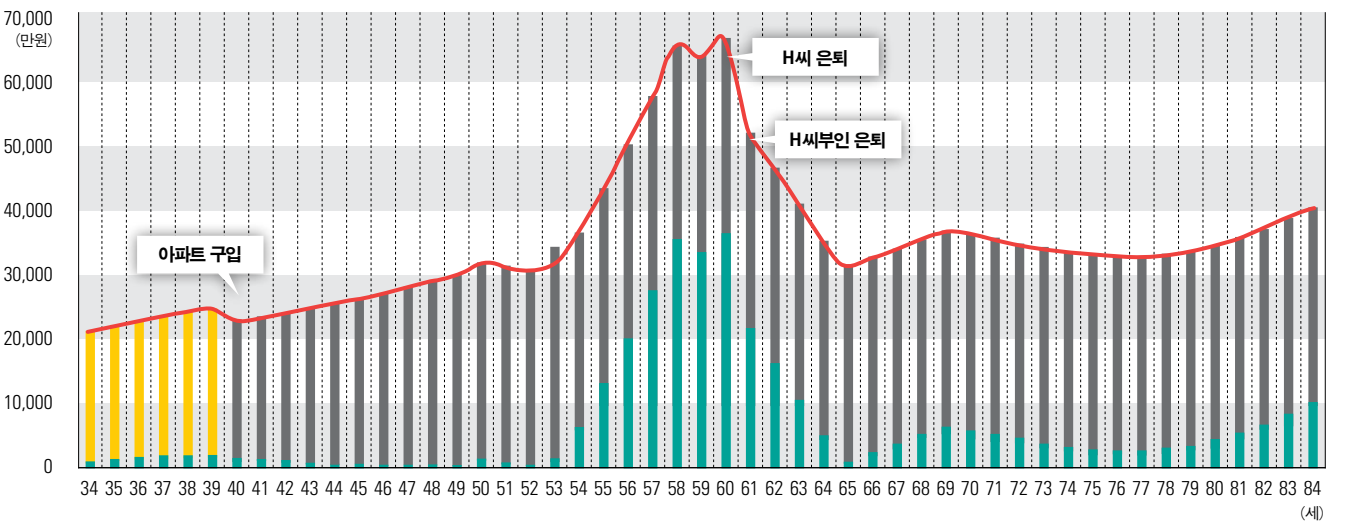
• 주 : 하나대투증권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분기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추구형’, ‘표준투자형’, ‘수익추구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대투증권, “머니TALK”, 2015.07

원활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은퇴시점 전후의 현금흐름 미스매치에 대비한 계획이 필요

H씨 부부는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으며, 직업의 특성 상 노후에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따라서 생애 전체로 볼 때 현금흐름 자체는 상대적으로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하지만 금융자산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퇴 직전 감당해야 하는 목돈 지출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연금을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목돈 지출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계획을 마련해 두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순자산 흐름⁴⁾



4) 위 순자산 흐름은 두 번째 방안인 자녀 결혼비를 낮추고 생활비를 축소하는 경우를 나타냄

사례를 통해 본 상속세 납부 요령

상속세 자원, 어떻게 마련할까?

상속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상속세를

납부할 것인지도 미리 계획을 세워 두어야

한다. 현금으로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자금력이 없어 상속받은 부동산을 금매물로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다.

어떤 방법을 활용해 상속세를 내는 것이

유리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평소 고객 상담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질세 방법에 대한 질문을 종종 받게 된다. 많은 이들이 무심코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상속세는 얼마나 내야 하느냐”는 것인데 이럴 때는 보통 “상속세를 낼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답변을 하곤 한다. 왜냐하면 상속세는(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미리 증여해 준 재산이 없다는 가정 아래)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경우라면 10억원까지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상속세는 한 해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상위 1.7% 이내’에 속하는 분들만 납부할 수 있는 특별한 세금이다. 상속세를 내야 할 만큼 큰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은 좋은 일이나, 때로는 상속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상속 재산 중 현금이 있다면 그 현금으로 세금을 내면 되지만,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당장 6개월 내에 세금 낼 돈을 마련해야 한다.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	구분	2009년	2010년	20119년	2012년	2013년
연도별 상속세 신고인원 (단위 : 명)	상속세 신고인원(A)	3,771	4,083	4,316	4,600	4,619
	사망자 수(B)	246,942	255,405	257,396	267,221	266,257
	상속세 신고비율 (A÷B)	1.5%	1.6%	1.7%	1.7%	1.7%

출처 | 2014년 국세통계연보 및 통계청 자료

CASE -

갑작스러운 모친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된 A씨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려받은 신천동의 건물은 시가가 30억원(기준시가 18억원)이지만, 당장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할 상속세를 마련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면 좋을까?

Q1.

**건물을 팔아서
납부하는 방법**

재산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음

당장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다. 다만, 건물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게 되면 기준시가 18억원으로 신고할 수 있었던 자산이 30억원으로 거래되면서 ‘시가’가 노출되어 상속세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금매로 처분할 경우에는 시세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확률이 높아 제값을 받지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Q2.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최초납부 후, 5년에 걸쳐 나누어낼 수 있음

상속세 납부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부기한 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일정한 기간(이하, 연부연납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연부연납제도’라고 한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하며, 신고기한 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5/6은 매년 1/6씩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납세자는 당장 1/6의 상속세 납부자금만 마련하면 되는 유리함이 있다. 만일 상속재산 중에서 기업상속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은 더 길어지는데, 기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로부터 12년 내로 할 수 있다. 연부연납제도는 납부할 세액을 미뤄주는 할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연 2.5%의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Q3.

**물납을
활용하는 방법**

납세자의 신청과 세무서장 승인이 필요

상속세는 현금납부가 원칙이지만, 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주식(단, 비상장주식은 제외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포함)의 가액이 1/2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으로도 세금납부를 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은 상속인이 선택한다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신고 시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자산의 가치 평가방법은 상속세를 과세할 때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Q4.

**대출을
활용하는 방법**

기준시가 이상의 담보대출은 상속세가 늘어날수 있음

대출은 말 그대로, 상속받은 재산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여 대출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최근 6월 11일자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 낮춘 1.5%로 발표하였기 때문에 이자비용 부담에 있어서 연부연납이자(2.5%)와 비교하여 의사결정을 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상속재산의 담보력이 노출되는 것이므로 신고 가액을 기준시가로 선택할 경우, 기준시가 이상의 대출은 상속재산의 신고가액을 높여서 세금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세 절세상담을 하다 보면 수많은 사례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대한 가장 현명한 예방 해결책은 현재 시점에서 상속세를 한 번 계산해보고, 낼 수 있는 자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다. 그것이 상속형보험이 됐든, 부동산을 정리해서 마련한 자금이 됐든 어쨌거나 상속재산 중에서 바로 꺼내서 낼 수 있는 현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이벤트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도 있고, 상속 개시일부터 6개월 안에 세금까지 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후손에게 물려준 소중한 자산이 중개업소에서 헐값에 팔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부부간 각서를 작성했다면 어.디.까.지 법률적인 효력이 있을까?

‘인륜지대사’라고 일컫는 결혼은 부부간 약속의 연속이다. 검은 머리 파뿌리 되도록 ‘서로 사랑하자’는

맹세를 시작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갈등을 헤쳐 나가기 위해 수많은 약속을 주고받는다.

만약 부부간 각서를 작성했다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폭력을 행사하면 10억원을 주겠다”는 각서, 효력이 있을까?

부부계약취소권이 2012년 폐지되었으므로 부부간 계약도 일반계약과 동일.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으므로,

“폭력을 행사하면 10억원을 주겠다”는 부부간 각서는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큼.

결혼 생활 중 부부는 서로 많은 약속을 주고받는다. 특히 배우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각서를 작성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폭력을 행사하면 10억원을 주겠다”, “외도를 해도 절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각서가 효력이 있을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법 제828조는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를 ‘부부계약취소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부부 사이의 계약이 정에 이끌리기 쉽고 진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경우가 많아 규정된 제도였다. 그러나 위 조항은 2012년 2월 10일 삭제되었으므로 현재는 부부간의 계약도 다른 일반적인 계약과 마찬가지로 취급됨을 유의해야 한다. 그런데 민법에 의하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각서 작성

당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계약이 아니었음이 증명된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없다. 최근 법원도 동거관계에 있는 남자가 “외도 시 10억원의 위자료를 주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그 각서가 협박에 의해 쓴 것으로 밝혀져 각서의 효력을 부정하였다. 또한 역시 민법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또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효력이 없다. 이경우는 당사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계약을 체결했다라도 무효이다. “폭력 행사 시 1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는 ‘현저하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많고, “외도를 해도 절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각서는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각서는 폭력행사 및 외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서 자체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효력이 없고, 이혼 ‘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효력이 있음.

부부 일방이 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재산을 적게 가지고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자 다른 일방이 “재산분할을 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혼한다”라는 각서를 쓸 것을 요구하였다. 이 경우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각서는 효력이 없다. 각서에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혼하기 ‘전(前)’작성된 재산분할청구권 포기각서는 이혼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은 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혼한 ‘후(後)’에 작성된 재산분할포기각서는 효력이 있다. 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면 이혼의 자유가 보장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만 허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혼한 뒤 2년이 지나도록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각서가 무효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

부부 사이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을까?

상속포기는 반드시 법원에 신청해야 하므로,

부부간에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음.

재혼하려는 여성이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상속포기각서를 쓰고 재혼했다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까?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정해 보자. A는 중견 사업가인 B와 재혼하기를 원한다. B의 자녀들은 A가 B의 사망 시 그 재산을 상속받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각서 작성을 원하고 있다. A가 그 각서를 쓰고 재혼하였다면 A는 B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을까?

위와 같은 각서 역시 효력이 없다. 민법에 정한 상속포기 방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법에 의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음을 안 ‘후(後)’3개월 이내에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해야 한다.

민법이 피상속인 사망 ‘후’에 상속포기를 하도록 한 이유는 상속개시 ‘전’에 하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강압적인 의사가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처럼 A가 작성한 각서는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므로 효력이 없다. 이는 공증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상속포기는 반드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A는 B의 정당한 상속인이므로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시니어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카드

시니어 계층의 인구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들 은퇴자들이 소비의 중요한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시니어 계층을 주 타깃으로 한 다양한 상품개발과 마케팅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카드산업의 경우도 은퇴자를 포함한 시니어 계층을 위해 부가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카드 상품을 제공하며 이들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60세 이상 시니어 계층의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병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불, 통신요금 결제, 할인마트 등 생활업종 등의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요 카드사들은 시니어 계층의 이러한 니즈를 반영한 상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카드의 '행복 knowhow 카드', 우리카드의 '행복가득 카드' 등이 있다.

시니어 계층을 위한 이들 카드들은 우선 시니어 계층이 건강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 점을 감안해 병원, 한의원, 약국, 건강진단센터 등 의료와 동물병원 등 반려동물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5~10%의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카드사들은 더 나아가 보장성보험 가입 시 할인 혜택을 주거나 상해보험 무료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다음으로는 주유 등 차량관련 서비스, 할인마트 등 생활관련 서비스 및 여행 서비스의 이용에 대해 청구할인 등을 통해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그 외에도 상조상품의 할인 서비스, 실버타운 및 요양원 우대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부가서비스를 차별화하고 있다.

따라서 시니어 계층은 향후 소비지출을 위한 카드를 선택할 경우 각 금융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꼼꼼히 비교분석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니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패턴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카드를 선택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제한된 노후 현금흐름 범위 내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지출은 미래설계를 통해 노후 필요자금을 준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시니어를 위한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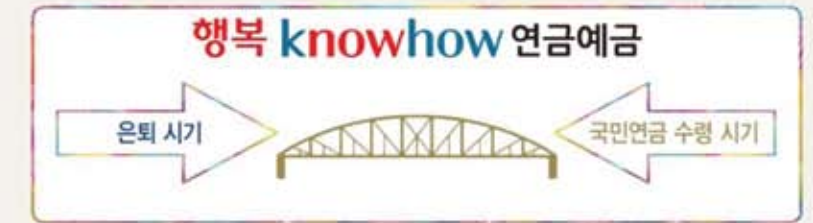
하나 행복 knowhow 카드	신한 미래설계 카드	국민 골드라이프 카드	우리 행복가득 카드
• 병원비 및 건강검진비 • 할인마트 등 생활비 할인 • 주유 및 여행혜택 서비스 등	• 병원비 및 동물병원 • 할인, 마트 등 생활비 할인 • 주유, 보장성보험 할인, 상조상품 할인 서비스 등	• 병원비 할인 및 상해보험 무료가입, 금융수수료 면제 등 • 주유 및 여행혜택 서비스	• 요양병원 등 병원비 • 할인, 마트 등 생활비 할인 • 여행, 문화 및 레저시설 혜택 서비스



별고 따뜻한 이미지를 지문 모티브로 표현한 행복나무는 고객님의 연륜과 외환은행의 다양한 혜택이 만나 큰 나무로 자라는 것을 형상화 하였습니다. 변함없는 나무처럼, 함께하면 늘 행복한 고객님의 동반자가 되고 싶은 영원을 담았습니다.

퇴직금 등 목돈 예치후 매월 생활비를
든든하게 수령하고 ~

국민연금 수령시기에는 만기해지금액을
높여서 만기 목돈수령의 기쁨까지 누리세요!



- ▶ 상 품 명 : 행복knowhow연금예금
- ▶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 ▶ 예금종류 : 정기예금
- ▶ 계약기간 :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 ▶ 가입금액 : 1백만원이상 제한없음
- ▶ 적용금리 : 기본금리 + 우대금리

(15.03.25 기준,세전)

기본금리	연1.75%	우대금리 (최대)	연0.1%	적용금리 (최대)	연 1.85%
------	--------	-----------	-------	-----------	---------

- 기본금리 : 가입일 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의 고시금리 (매1년단위로 변동 적용됨)

- 우대금리 : 최대 연0.1%

- ① 가입후 6개월이상 경과된 예금주 본인명의 외환은행 예·적금 해지후 1개월이내에 이 예금을 신규하는 경우 연0.1%
- ② 외환은행의 은퇴설계시스템을 통한 은퇴설계 상담후 이 예금을 신규하는 경우 연0.1%

▶ 상품유형 및 원금과 이자 수령방법

- 상품유형 : 거치후 연금식 또는 즉시 연금식 중 택일

- ① 거치후 연금식 : 최소 1년이상 거치후 나머지 계약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수령
➔ 거치기간중 이자는 매년 가입일 해당일에 지급됨
- ② 즉시 연금식 : 거치기간 없이 전 계약기간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 균등분할 수령

상품 유형	거치기간	원금과 이자 수령기간	원금과 이자 지급시기
거치후 연금식	1년이상 (필수)	1년이상 4년이내 연단위	매월 신규가입 해당일
즉시 연금식	없음	1년이상 5년이내 연단위	매월 신규가입 해당일

- 만기해지금액 지정 : 가입원금의 70%이내에서 만기에 수령 희망하는 금액을 지정 가능

➔ 만기해지금액의 원금은 만기일에, 이자는 매월 수령

▶ 수수료 면제 서비스 : 이 예금의 원금과 이자를 본인명의 외환은행 입출금계좌로 입금받는 경우,

입금월 다음달에 전자금융 다른은행 이체 수수료, 외환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다른은행 자동화기기^(주) 출금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주) 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 함

※ 이 예금은 세금우대 및 생계형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 예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본 내용은 정보의 주요 내용만을 간추린 것으로 구체적인 거래나 정보에 대하여는 은행의 약관이나 개별 계약서를 참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권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거나 은행홈페이지(www.keb.c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꿈을 꽃피우다

행복하고 여유로운 인생 2막은 내 안에 숨겨진 작은 꿈, 희망에서 출발한다. 아직도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을 찾고 있다면? 찾았다고 해도 실행에 옮기기 망설여진다면? 우연히 만난 영화 한 편에서 그 실마리를 발견할지도 모른다.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영화 다섯 편.

“오늘을 즐기는 한 언제나 청춘”

이 영화는 스웨덴 요나스 요나손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다. 지난 100년간 스탈린과 김일성, 아인슈타인의 멘토로 20세기 역사를 들었다 났다 한 숨겨진 능력자 알란이 주인공. 영화는 알란이 100세 생일에 요양원을 탈출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100세에도 불구하고 팔팔한(?) 영혼 덕에 무작정 모험 여행을 떠나게 되고 영화는 그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 영화는 무엇보다도 100세의 인생 여정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 어떤 순간이더라도 삶을 그 자체로 바라봤을 뿐, 더 큰 욕심을 부리거나 계획하지 않았다. 이것이 알란 100세의 비결이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살면 인생은 그뿐, 지금 이 순간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저하지 말 것.” 이것이 그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 영화는 때때로 창문을 넘고 싶지만, 창틀을 부여잡는 우리에게 세상은 생각보다 단순하고 우연적인일 뿐이라고 속삭인다.

“90세 뮤지션들의 행복에너지”

낭만과 희망을 말하는 쿠비음악 덕분인지 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리는 영화.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과거를 추억하고 행복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악을 한다는 쿠바인들의 감성과 열정을 엿볼 수 있어 더욱 흥미롭다. 음반 프로듀서인 라이 쿠더는 쿠바 음악에 매료되어 쿠바 혁명 이후 사라진 뮤지션들을 수소문해 하나 둘 찾아낸다. 1950년대 전성기를 누리다 무대 뒤로 사라진 가수 ‘이브라힘 페러’, 낮엔 이발사로, 밤엔 클럽에서 노래를 부르며 시작한 멤버의 최고령 ‘콤파이 세군도’, 쿠바의 3대 피아니스트 중 하나로 이름을 알렸지만 80살이 넘어서야 첫 솔로 음반을 내게 된 ‘루벤 곤잘레스’, 아들 모두는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처럼 라이 쿠더에 의해 발견된다.

1950년대식 낡은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아들이 펼치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멋진 하모니는 소름끼치는 감동과 짜릿함을 선물한다. 그렇게 그동안 세상에 잊혀져 있었던 주인공들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천부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며 음반사에 길이 남을 걸작음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만들어낸다.

라스트베가스 (2013)

“인생 제대로 놀 줄 아는 꽃할배들”

이 영화는 58년 평생지기 죽마고우 친구들의 나이에 연연해하지 않고 인생을 즐기는 모습,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진솔한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전한다. 첫 번째 주인공 빌리는 변호사로 워커홀릭 독신주의자였지만, 뜻하지 않은 사랑에 빠져 급기야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프로포즈하는 용기를 내게 된다. 두 번째 주인공 패디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무기력한 삶을 사는 고집불통 노인. 친구 ‘빌리’의 총각파티에 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우지만, 절친을 무시하는 건방진 청년에게 의리의 한방을 먹이며 아직도 건재함을 과시한다. 세 번째 주인공 ‘아치’는 다소 소심한 성격이지만 라스베가스의 화끈한 총각파티를 위해서라면 가솔도 서슴지 않는다. 마지막 주인공 샘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누구보다 자유분방하고 화끈하게 총각파티를 즐기는 모습으로 영화 내내 시선을 끈다. 평생을 함께한 58년 지기 죽마고우 친구들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며 제대로 인생을 즐기는 모습과 끈끈한 우정의 스토리가 훈훈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행복을 찾아서 (2006)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 기회”

이 영화는 인터내셔널홀딩스 최고경영자 크리스 가드너의 기적 같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행복을 찾아서는 무일푼 노숙자로 전락했다가 주식중개인 인턴을 거쳐 ‘가드너 앤 리치 컴퍼니’라는 굴지의 투자사를 설립한 크리스 가드너의 이야기다. 의료기 세일즈맨인 크리스 가드너는 여기저기 뛰어다니지만 힘든 생활의 연속이다. 세금도 못내는 형편에 참다 지친 아내마저 떠나버리고, 아들과 둘만이 남겨진다. 우연히 빨간색 페라리를 모는 성공한 주식중개인을 만나 ‘남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함께 주식중개인 인턴에 지원하게 된다. 영화에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을 찾기 위해 마지막 기회에 도전하며 재기에 성공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풀어내면서 ‘진정한 용기’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영화 실제모델인 크리스 가드너는 “나는 안 되는 구나,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 그때 지금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자기 자신에게 기회를 주는 삶이다” 등 지치고 힘든 우리에게 또 다른 용기를 선물한다.

로큰롤인생 (2007)

“Forever Young(젊음이여 영원하라), Alive and Well(건재하다)”

이 영화는 미국 매사추세츠에서 활동하는 노인 코러스 그룹 ‘영앳하트’가 특별공연을 준비하는 6주간의 연습과정을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다. “즐길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나이는 중요치 않다!”를 외치며 로큰롤에 행복을 실어 노래하는 평균 나이 81세의 코러스 밴드인 ‘영앳하트’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한 용기를 선사하고 있다. “항상 두 손과 두 팔로 땀 흘려 살아가길, 그리고 언제나 즐거운 마음이길”이라는 노래 가사처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노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영앳하트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나이든다는 것’에 대해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한다.

창문 넘어 도망친 100세 노인 (2014)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1999)

행복균을 몸 속에 ‘프로바이오틱스’

장 건강엔 유산균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혔지만, 요즘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대세.

장 건강을 넘어 우울증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더욱 매력적인 프로바이오틱스의 모든 것.

평소 잦은 회식, 기름진 식단, 술과 담배를 즐기는 회사원 민수씨(46)는 요즘 장에 가스가 자주 차고 방귀 냄새도 심하다. 수시로 찾아오는 변비와 설사로 곤욕을 치르기도 하고, 더러는 피부에 자주 염증이 생겨 회사 생활에 집중하기가 힘들다. 게다가 점점 짜증은 늘어만 가고, 우울감도 심해진 것 같다.

원인은 장 질환. 작고 사소하게 시작된 장 질환이 점차 장의 면역력을 저하시켰고, 다른 질병에 취약한 상태로 만든 것.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몸과 정신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현명한 건강 관리를 위해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프로바이오틱스 등 장 건강기능식품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우울증 억제에도
효과적

장 건강을 돕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요즘 대세다. 세계보건기구는 프로바이오틱스를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을 총칭해 정의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점막에서 생육하며 젖산을 생성해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든다. 이러한 환경변화는 유익균 증가를 돕는다. 산성 환경에서 견디지 못한 유해균은 줄어들고, 유익균들은 더욱 증가해 건강한 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정상적인 신체의 노화과정에서 따라오는 장내 유익균 감소, 유해균 증가 과정에서 유산균 밸런스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줘 젊고 건강한 장,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탁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우울감을 해소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흥미롭다. 네덜란드 라이덴대 연구팀은 최근 생균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감소시켜 우울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프로바이오틱스 분말제를 섭취한 그룹의 경우 공격성을 나타내거나 지난 일을 후회하는 등 부정적인 사고가 눈에 띄게 감소했던 것이다. 이 같은 연구결과에 대해 연구진은 장과 뇌 사이의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는 장내 유익균 증가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식물성 섬유질과
함께 섭취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거트, 김치 등 발효식품에 풍부하게 들어 있다. 하지만 발효음식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사실 함유된 유산균의 종류가 제한적이고, 그 수도 적다. 이를 보완하는 것이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이름으로 나온 건강기능식품이다. 이들 제품들은 여러 종류의 유산균을 혼합한 형태로 일반 요거트에 비해 100배 정도 많은 유산균을 함유하고 있다. 균이 무사히 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코팅이나 캡슐 등 특수 처리도 더하고 있어 더욱 효과적이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하루에 1억~100억 개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 상당수 쓸개즙, 위산에 의해 장에 안착되기 전에 사멸하기 때문. 따라서 전문가들은 식물성 섬유질을 함께 먹기를 권장하고 있다. 우리가 섭취한 식물성 섬유는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나 유익균의 증식 장소로 활용된다. 따라서 식물성 섬유질을 먹으면 프로바이오틱스의 효과도 배가된다는 얘기. 속면도 유산균을 늘리는 방법 중의 하나다. 반면 동물성 지방과 같은 육식은 장내에서 유해균의 먹이로 쓰인다는 사실도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프로바이오틱스를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최소 3개월간 지속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주의할 점은 무조건 많이 복용한다고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과량으로 섭취하면 가스를 발생시켜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TIP.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선택 시
체크리스트

- 유산균 숫자를 확인하라!**
우리나라 식약청 권장섭취량은 1억~100억개. 최근 유산균 요구량 증가 추세에 따라 100억개 이상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제품 영양기능정보에서 유산균 잔존량도 꼭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 유산균 균종을 확인하라!**
유산균이 장 건강에 외에도 추가적인 효과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균종이 다양하게, 제대로 들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락토바실러스균 2종 이상, 비피더스균 1종 이상이 들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살아있는 미생물**
유산균은 온도, 산소, 빛에 취약하기 때문에 제품 선택 시 어떻게 3가지 위해요소가 차단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유산균의 냉장관리 여부도 꼭 따져봐야 한다. 냉장보관을 하면 살아있는 균들의 유지기간을 늘릴 수 있지만 반드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건 아니다.
- 장에 정착하는 능력**
유산균은 위산, 담즙산 등의 소화요소에 잘 견뎌내어 장에 정착해야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장에 잘 정착하기 위한 기술이 접목되었는지도 체크해 봐야 한다. 이밖에도 제조회사, 유산균 원료공급회사, 유산균 코팅 여부, 제형 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나를 채우는 특별한 여름 휴가

3살, 5살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전업주부 아내를 둔 직장인 H씨는 올 여름 휴가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지난 2년 동안 휴가를 처가와 본가 부모님과 함께 다녀왔는데, 3박 4일의 여행 동안 운전기사

노릇 하느라, 어린 두 아들과 놀아주느라 힘들었던 기억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H씨는 결심했다. 일과 가정에 지친 자신에게 올해만큼은 특별한 휴가를 선물하겠노라고.

지친 영혼을 달래는 ‘명상휴가’

조용한 곳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쉬었다가 오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 바쁘고 힘든 회사생활로 몸과 마음이 떨어진 낙엽처럼 지치지만 막상 결혼, 출산, 육아에 시달리며 자기만의 공간과 시간을 갖기 힘든 게 현실이다. 또 주말마다 경조사는 왜 이리 많은지... 그래서 가끔은 절실하게 ‘영혼의 자유’를 꿈꾸게 된다. ‘영혼을 채우는 휴가’를 꿈꾼다면, 종교와 상관없이 템플스테이를 찾는 것도 좋다. 경북 문경 한산사에서는 ‘행복수업 명상수행학교’가 있다. 이 곳은 참선을 배우는 곳인데 1주일 프로그램이다. 문경 한산사는 오지라고 불릴 만큼 깊은 산골에 자리잡고 있다. 예천IC를 나와 굽이굽이 숲을 운전하다보면 ‘한산사’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는 조용하고, 고요한 곳이 나온다. 발자국 소리마저도 크게 들리는 이곳은 해발고도 750~800m 백두대간의 끝에 위치해 있다. 휴대전화마저 잘 통하지 않는 이 곳에선 일주일 동안 밥 먹고 자는 시간 외에는 명상과 수업의 연속이다. 일주일 간의 명상수행학교를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새벽마다 조용히 걷던 숲길과 소나무 숲의 향기가 새록새록하다. 채우는데 급급했던 삶, 그러나 비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운 지금 더 행복함을 느낀다.

전국 구석구석 템플스테이 정보 www.templestay.com

함께 떠난 여행에서 혼자만의 시간 갖기

H씨는 예전부터 제주도 올레길과 한라산 등반이 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여러 여건이 쉽지 않았다. 아이들과 함께 올레길을 걷기는 무리였고, 아내는 제주도까지 가서 왜 힘들게 건너며 반대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4박5일의 제주 여행 플랜을 짜며, 3일은 가족과 함께 2일은 각자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기로 했다. 서로의 취향이나 하고 싶은 것을 무조건 가족과 함께 해야 한다는 논리로 막는 것은 모두가 행복한 휴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바다가 보이는 멋진 카페에서 홀로 책을 읽고 싶다고 했다. 첫날 아침 아내는 비양도가 바라다보이는 카페로 갔다. 평소 읽고 싶었던 2권의 책을 갖고 행복한 표정으로 카페로 들어갔다. H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박물관과 아쿠아플라넷을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H씨는 마지막 2일 동안 올레 3코스를 걷기로 했다. 아내는 아이들과 바닷가에서 시간을 보내고, H씨는 홀로 배낭을 짰다. 숙소를 나와 무작정 바닷길로 향했다. 몇 코스를 걷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릿속이 새하얗게 될 때까지 무작정 걷는 일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 숲길, 오름 할 것 없이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저녁이 되면 택시를 타고 다시 숙소로 돌아온 후, 다음날 아침 다시 배낭을 매고 한라산을 올랐다. 힘든 길이었지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다. 점심은 간단히 김밥과 시원한 얼음물로 해결하고 또 걸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은 구름처럼 가벼워지고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은퇴 후 귀농·귀촌 ‘충분한 사전준비’ 있어야

귀농, 전원생활과 관련된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처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귀농·귀촌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주말농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다양한 귀농·귀촌 박람회가 열리고 있으며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베이비부머 이외의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 빠르게 증가

농사를 지으며 농촌에서 사는 것이 도시민으로 빡빡한 삶을 사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라는 생각으로 덤벼들었다가 실패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은퇴생활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귀농·귀촌과 관련된 현황,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귀농이나 귀촌을 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할지 알아보자.

통계청에 따르면 귀농·귀촌 가구는 2001년 880가구에서 2014년 4만4,586가구로 약 50배 증가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 2013년 3만2,424가구에 비해 37.5% 증가하였다. 귀농·귀촌의 지속적인 증가는 전원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시기에 진입하면서 귀농·귀촌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귀농·귀촌의 이유(복수응답)가 조용한 전원생활(31.4%), 도시생활에서의 회의(24.8%), 은퇴 후 여가생활(24.3%) 순으로 나타났다.

귀농 및 귀촌 가구주의 연령대별 비중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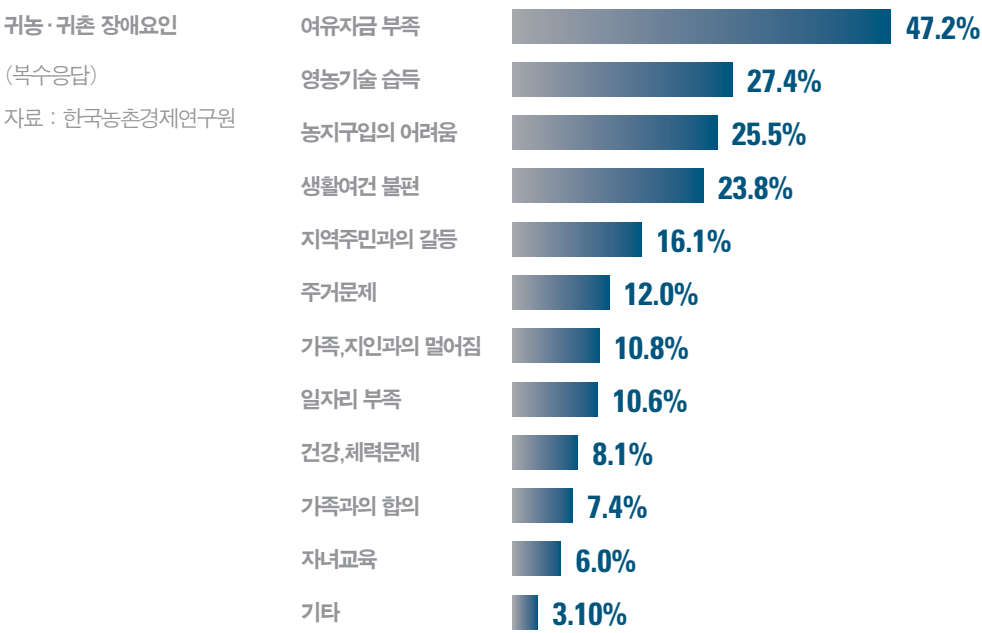
귀농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2013	1,253 (11.5%)	2,510 (23.0%)	4,289 (39.3%)	2,288 (16.0%)	583 (5.3%)	10,923 (100%)
2014	1,197 (10.7%)	2,501 (22.4%)	4,409 (39.6%)	2,383 (21.4%)	654 (5.9%)	11,144 (100%)

귀촌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합계
2013	3,807 (17.7%)	4,748 (22.1%)	6,131 (28.5%)	4,447 (20.7%)	2,368 (11.0%)	21,501 (100%)
2014	6,546 (19.6%)	7,367 (22.0%)	9,910 (29.6%)	6,378 (19.1%)	3,241 (9.7%)	33,442 (100%)

귀농·귀촌의 성공요인, ‘충분한 여유자금’

귀농에 성공하거나 귀촌하여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하는 사례들이 TV 등 언론매체에서 보도되기도 하나 실패한 사례도 상당히 많다. 농정연구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귀농·귀촌한 가구 중 약 10% 정도가 첫 이주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는데 이들 중 80%는 작물변경 등의 이유로 다른 농촌지역으로, 나머지 20%는 도시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귀농·귀촌 장애요인으로 여유자금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미 정착에 성공한 귀농·귀촌인들이 손꼽은 가장 큰 성공요인도 ‘경제적 여유자금과 안정적 소득’으로 조사되어 여유자금이 매우 중요한 귀농·귀촌의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귀농 후에 생산한 농산물을 통해 일정 이상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확실한 수입원 없이 이 기간을 견디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귀농·귀촌 후에 소득이 감소한 비중은 65%에 달한 반면 증가한 비중은 13.8%에 불과하였다. 농정연구센터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연평균 순소득은 3,017만원(농업소득 2,232만원, 민박 등 농업외소득 785만원)으로 이는 2012년 기준 자영업자 가구당 소득 3,472만원, 임금근로자 3,563만원에 비해서도 낮다. 이와 같이 농업소득이 적은 이유로 실제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노후자금이나 농업외소득으로 귀농·귀촌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만족도 높으나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는 여전

그러나 귀농·귀촌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성공 평가에서 성공적이라고 답변한 비중이 45%에 달하는 반면 실패라고 판단한 비중은 5%에 불과하였으며 향후 도시로 이주하겠나는 질문에는 72%는 도시로 이주할 의사가 거의 없다고 답변해 귀농·귀촌생활에 대한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요인 중의 하나가 귀농·귀촌으로 소득은 줄지만 그만큼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60대 부부 기준으로 서울 및 수도권 거주자의 월평균 생활비가 269만원인데 비해 비수도권은 209만원이었으며 지난해 한 증권사는 농어촌 거주자의 월평균 생활비를 188만원 정도로 추정한 바 있다.

그러나 귀농·귀촌을 하더라도 도시에 비해 크게 뒤쳐지지 않는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욕구는 여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문화생활이 충분히 가능한 경기도와 제주 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이 증가하였는데 귀농·귀촌 가구 중 4분의 1이 경기도로 이주하였고 제주지역으로의 귀농·귀촌은 2013년 204가구에서 2014년 3,569가구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귀농·귀촌과 관련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보 및 혜택 활용

귀농·귀촌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담 및 교육에서 주택구입비까지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을 위한 원스탑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 절차를 제시하고 크게는 탐색, 준비, 실행 등 각 단계별로 정부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탐색단계에서는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및 지역정보, 다양한 교육과 현장전문가와와의 일대일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한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부터 매년 1회 귀농·귀촌 창업박람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정부 및 지자체 정책을 안내하고 전국의 시·군, 유관기관 등 관계자에게 주택, 농지, 품목 등 지역정보 습득기회를 제공하며 귀농·귀촌 유형별 소그룹 강의도 제공한다.

준비단계에서는 전문적인 귀농·귀촌 교육을 제공하는데, 온라인교육으로 귀농·귀촌에 필요한 품목기술부터 기초 마인드 교육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오프라인교육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단계적인 교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

육과정이 제공된다. 귀농에 대해서는 기초소양 등 이론중심의 기초과정, 품목 및 지역 등에 대한 실습중심의 중급과정, 품목심화 및 정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귀농심화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귀촌에 대해서는 귀촌 생활정착기술 등에 대한 교육이 제공된다.

실행단계에서는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귀농인의 집 등을 통해 귀농·귀촌 희망자가 일정기간 동안 체류하면서 농업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도 활용할 수 있는데 농업창업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 주택구입 및 신축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다. 기타 세제지원으로 농지 구입시 취득세 및 주택양도소득세가 감면되며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다양한 지원정책이 마련되어 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퇴직 연령도 짧아짐에 따라 퇴직 후에도 한참 더 일해야 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이에 따라 퇴직 후 귀농·귀촌보다 퇴직 전에 미리 귀농·귀촌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농정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을 위한 평균 준비기간이 18.4개월이었다. 또한 충분한 여유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농정연구센터에 따르면 귀농·귀촌인의 평균 준비자금은 1억 2,364만원으로 집계되었는데 주택, 농지, 농기계 등 구입 등 정착비용 이외의 충분한 자금과 농업외소득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귀농·귀촌을 결심할 때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의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2014년 귀농·귀촌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이 50%를 넘었는데 이는 외로움 등으로 인해 귀농·귀촌 생활의 실패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준비와 더불어 정착할 귀농·귀촌 지역에 대한 선정과 이와 관련한 체계적인 귀농·귀촌교육과 사전체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에 대한 충분한 활용 등이 요구된다. 또한 귀농·귀촌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찰도 필요하다.

귀농귀촌종합센터가

제시하는 귀농·귀촌

준비절차화

자료 : 귀농귀촌종합센터

단계	구분	고려사항
1단계	귀농탐색	귀농귀촌종합센터, 귀농귀촌창업박람회, 시·군귀농귀촌지원센터, 지자체 귀농협의회 및 관련기관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수집
2단계	귀농결심	농촌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섣뎡 응할 가족은 많지 않으므로 가족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의점 도출
3단계	귀농교육	정보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정된 대학 등에서 시행하는 귀농·귀촌 교육 이수
4단계	영농기술	대상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에 참여, 우수 귀농·귀촌 농가 견학, 현장 체험 등을 통해 충분한 영농기술 습득
5단계	정착지 물색	작목 선택과 기술 습득 후에는 생활여건 및 선정 작목의 적합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정착지 물색
6단계	주택 및 농지구입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 또는 임차 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 보고 선택 주택은 가능한 농지와 가까운 곳으로 결정
7단계	영농계획 수립	합리적이고 치밀한 영농계획 수립은 필수, 농산물의 가격변동이 적고, 유통이 확보되고 영농기술과 최소자본이 투입되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 수립

하반기 세계경제의 위기 및 기회요인은?

올해도 절반이 남은 가운데 지난 상반기 글로벌 경제 성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부진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그렇다면 하반기 세계경제의 위기와 기회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상반기 글로벌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부진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해

2015년도 절반이 지났다. 상반기 세계경제는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의 양적완화 강화와 스위스, 캐나다, 호주, 중국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회복세를 보여주지 못했다. 세계경제의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경제가 달러화 강세로 인한 무역수지 적자 확대 및 기업실적 악화와 1/4분기 미국의 흑한 피해, 그리고 중국경제의 부동산경기 부진과 과잉설비 조정 등으로 인한 생산 및 투자 둔화세 등으로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로존과 일본경제가 양적완화 및 통화가치 하락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여줬지만, 세계경제를 견인하기에는 힘이 부치는 모습이었다.

중국경기 둔화, 유로존과 일본의 성장 모멘텀 약화로

하반기 세계경제도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듯

하반기 세계경제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경기 둔화가 계속되는 가운데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약세로 석유 및 원자재 수출국 경기도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신흥국의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유로존과 일본경제도 정책여력 약화와 통화가치 약세 제한 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성장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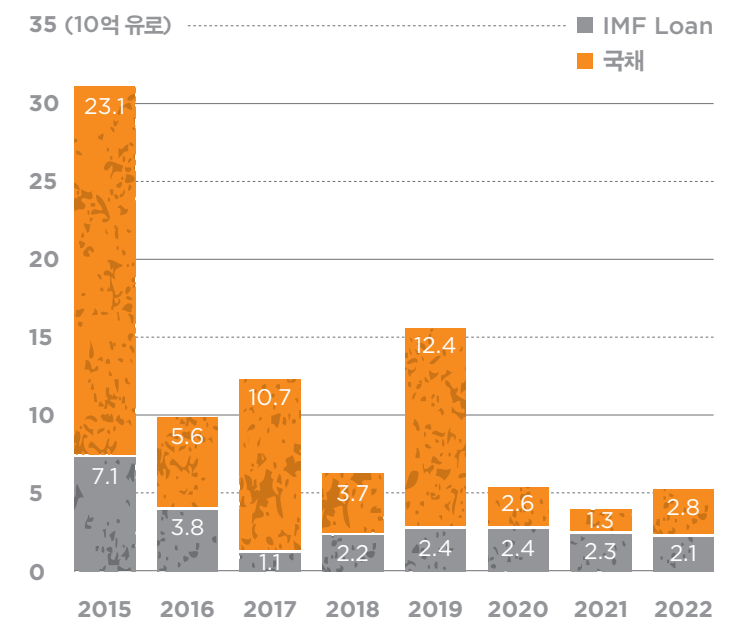
미국경제가 건실한 재무구조, 자산가치 상승, 고용여건 개선, 유가하락 등에 힘입어 개인소비를 중심으로 상반기에 비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통화정책 불확실성과 에너지산업 투자수요 하락 등으로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당초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그렉시트(Grexit)는 유로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재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하반기 세계경제도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현재 가장 불안한 변수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Grexit) 가능성이다. 올해 그리스가 상환해야 할 국채 및 IMF 대출금 규모가 300억 유로를 상환한다는 점에서 채권단과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그리스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선언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장도 그리스의 디폴트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리스가 디폴트 선언 이후 유로존을 탈퇴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시장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선언하더라도 채권단과의 추가협상을 통해 디폴트 문제를 해결하고 유로존에 잔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자본유출 가속화, 국내 자원조달 불투명, 포퓰리즘 만연 등으로 그리스가 독자적인 통화를 발행하고 유로존을 탈퇴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할 경우 이는 유로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재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 국채 및 IMF 대출상환 스케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연준 금리인상은 신흥국의 대규모 자금이탈을 촉발할 우려

하반기 세계경제의 두 번째 위기요인은 미(美)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이다. 앨런 의장의 '연내 금리인상 재확인'과 최근 미국 고용시장 개선 등을 감안할 때 연준이 올해 9월경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까지 시장의 관심은 금리인상 시점에 집중되어 있지만, 사상초유의 '출구전략' 실험이라는 점에서 인상 이후의 속도나 방식, 보유 자산 축소 방향 등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이다. 실제로 버냉키 전 의장이 '출구전략'을 시사한 2013년 상반기에 글로벌 금융시장은 유동성 축소에 대한 우려 속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변동성 확대를 경험한 바 있다. IMF와 세계은행(WB)과 같은 국제기구 역시 미 금리인상이 초래할 달러화 강세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을 우려해 연준에 금리인상을 내년으로 연기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연준이 국제기구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신흥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자금유출 등으로 2013년을 뛰어넘는 변동성 확대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중국, 경제 관리에 실패할 경우 경착륙할 가능성 배제 못해

중국경제의 부진도 하반기 세계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생산·투자·수출 등 그동안 중국경제를 견인해 온 제조업 부문의 성장세 둔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수입물가 하락, 주택시장 위축, 일부 산업의 과잉 생산 등으로 디플레이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과잉생산 및 비효율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연쇄부도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경착륙 및 디플레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경기부양에 나서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한 내성(Tolerance)으로 경기부양의 효과가 점차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 정책당국이 적절한 수준의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으로 중국경제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국제유가 급등은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해서 연준 금리인상 속도를 가속화할 우려

국제유가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갈등이나 OPEC의 감축 등으로 인한 급격한 수급상의 변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으로 급등한다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세계경제에 충격을 주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되살아날 경우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가 가속화되고 ECB,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경제에 커다란 충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과 인도경제의 성장세 강화는 하반기 세계경제의 기회요인

그러나 이와 같은 리스크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위기요인을 무사히 넘길 경우 다음과 같은 기회요인으로 인해 하반기 세계경제의 성장 모멘텀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첫 번째 기회요인은 미국의 '출구전략'에도 불구하고 주요국 중앙은행의 저금리 및 통화완화 정책으로 유동성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저유가와 신흥국 수요부진 등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기 때문에 주요국 중앙은행은 하반기에도 경기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계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도 경제의 성장 모멘텀 강화도 기회요인이다. 인도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바탕에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 그의 경제정책인 '모디노믹스'가 있다. 모디 총리는 ①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한 외국인 투자 유치, ②수출주도 제조업 육성, ③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모디노믹스에 대한 기대로 가계소비 및 투자 수요가 확대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 경기도 동반 확장하는 등 인도경제도 순항하고 있다. 인도경제가 중국 경기둔화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데다,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신용버블에 대한 우려가 낮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중국의 빈자리를 인도가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 정책당국이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중국경제의 연착륙 유도에 성공하고, 고기술·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비중확대, 물류 및 금융 서비스 산업의 현대화, 정보화 혁명 추진, R&D 투자 확대 등의 산업 구조조정에서도 성과가 나타난다면 중국경제는 기존의 양적 위주 성장에서 질적 위주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경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스 사태, 美 금리인상, 중국 경착륙 가능성 등은 전개방향에 따라 세계경제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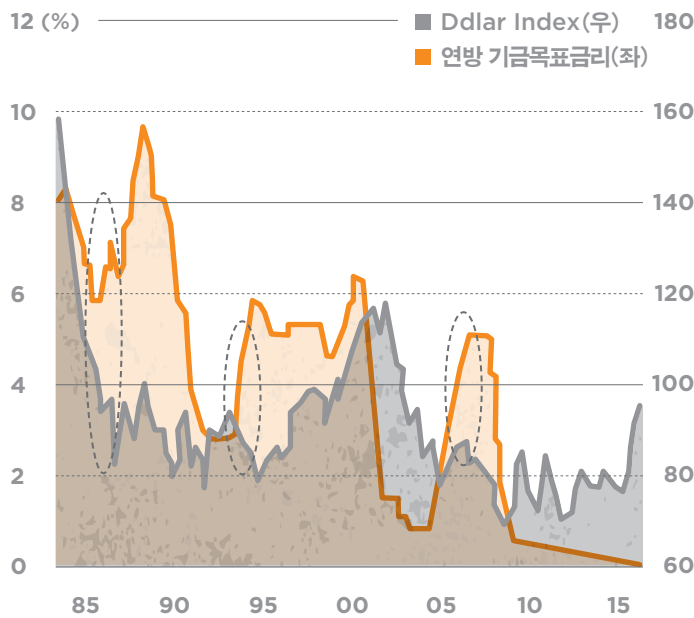
한편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그리스 사태, 미 연준 금리인상,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와 같은 리스크 요인은 앞으로의 전개방향에 따라 오히려 세계경제의 기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성장 모멘텀을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ECB의 적극적인 통화완화 정책과 이로 인한 유로화 약세가 실물경제를 뒷받침하는 가운데, 그리스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고 고용 및 재정 구조개혁 등에서 성과가 나타날 경우, 유로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유로존 실물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 어갈 가능성이 높다.

美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인상을 점진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할 경우 달러화 강세가 완화되고 신흥국으로의 자금유출도 제한적일 것이다. 실제로 과거 3차례 금리인상기 경험을 보면, 금리인상 이후 달러화는 오히려 약세로 반전되었으며 미국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광범위한 충격이 억제되어 왔다.

마지막으로 중국 정책당국이 적절한 관리를 통해서 중국경제의 연착륙 유도에 성공하고, 고기술·고부가가치 제조업의 비중확대, 물류 및 금융 서비스 산업의 현대화, 정보화 혁명 추진, R&D 투자 확대 등의 산업 구조조정에서도 성과가 나타난다면 중국경제는 기존의 양적 위주 성장에서 질적 위주 성장으로 새로운 성장경로를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美 연방기금목표금리 및 달러화 지수



연준의 금리인상, 세계 금융시장의 새로운 폭풍일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인상의 불을 지를 예정이다. 하지만 사상 초유의 새로운 실험 앞에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각종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만큼, 출구전략과 관련된 연준의 행보에 대한 루머와 예상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요즈음 하반기 전망을 한다고 나름 정신이 없는 시즌이다. 하필이면 메르스 사태까지 겹쳐, 그렇지 않아도 뒤숭숭하던 우리 경제의 앞날에 더욱 먹구름이 자욱해진 모습이다. 특히나 올 하반기에는 초대형 폭풍이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이 결국 금리인상의 불을 지를 예정이라고 한다.

조금 이상한 느낌도 든다. 연준의 금리인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통화정책의 정상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그 전제는 바로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미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6년여에 걸친 수렁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일 아닌가? 그렇다면 왜 이를 두려워할까?

사상 초유의 출구전략에 따른 불확실성에 주목

무엇보다 불확실성이 큰 탓이다. 그동안 연준의 대규모 통화부양책이 사상 유례없는 일이었던 만큼, 이를 정상화한다는 것도 사상 초유의 새로운 실험일 수밖에 없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세상에 달러가 부족해지지 않을까? 연준의 금리인상으로 세계 금리도 덩달아 오르지 않을까? 또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폭등하지 않을까?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일에 정답이 있을 리 없을 것이다.

나아가 연준의 금리인상 과정이나 그 이후의 행보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가득하다. 지금은 연준이 언제 금리인상을 시작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금리인상의 속도나 방식이다. 게다가 금리인상은 이른바 양적완화를 포함해 그동안 연준이 제로금리 하에서 퍼부은 각종 비전통적인 통화부양책에서 벗어나는 방식이나 전략(이를 통칭해 ‘출구전략’이라고 부른다)의 한 가지 측면일 뿐이다. 따라서 금리인상 이후의 행보 역시 중요한 쟁점이 아닐 수 없다.

흔히 연준의 금리인상을 ‘lift-off’로 부르는데, 우리말로 ‘발진’이나 ‘이륙’의 뜻이다. 비행기나 헬리콥터마냥 위로 비상한다는 의미인

데, 그러나 연준의 스탠리 피셔 부의장은 이런 표현이 금리인상 행보를 과장한다고 반박한다. 그는 오히려 ‘Crawling’, 즉 ‘기어가기’가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금리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는 의미다. 게다가 연준은 금리인상 과정에서 기준금리 외에 다양한 수단(초과지준금리와 역레포 등)을 병행해 그 속도나 효력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중을 밝힌 바 있다.

그만큼 신중하고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한다. 그리고 출구전략이라고 하면, 제로금리의 정상화, 즉 금리인상을 한 축으로 하면서 나아가 그동안 양적완화 등을 통해 늘어난 연준의 보유자산(국채와 MBS 등)을 축소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금리인상에 이어 보유자산 축소 향방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된다.

이 역시 두 단계로 나뉜다. 우선, 만기도래 자산의 재투자 중단이다. 사실 그동안 연준은 보유자산의 만기가 도래할 때 그 원금을 모두 또 다른 국채나 MBS에 재투자해 왔다. 따라서 보유자산 총량은 그 대로 유지되고, 양적완화에 따른 해당 자산의 금리하락 효과도 변함없는 셈이다. 하지만 조만간 금리인상에 이어 이러한 재투자도 중단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아예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방안인데, 일단 국채는 매각할 의향이 없고, MBS도 당장에 매각 계획은 없다고 연준은 설명한다.

그렇다면 당장에는 금리인상 이후 재투자 중단 향방이 쟁점이 되는데, 사실 2016년에만 2,000억달러 이상의 만기도래가 예정되어 있다. 2023년까지는 총 1.72조 달러의 만기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연준의 지난 3차 양적완화 규모 1.63조 달러를 상회하는 규모다. 어쩌면, (앞에서 지적한대로 연준의 금리인상이 지극히 신중하고 점진적이라고 할 때) 이러한 재투자 중단이 더 큰 위험일지 모른다.

다만 한 가지 짚어둘 쟁점이 있다. 2008년 말 이후 연준은 양적완화를 통해 국채와 MBS를 무려 3.5조 달러 이상 인수했는데, 유통시장을 통해 시중 금융기관에게서 매수한 만큼 시중 유동성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늘어난 유동성 중 2.5조 달러가량이 이른바 초과지준(시중 은행권이 법정 지급준비금 외에 중앙은행에 예치하는 돈)으로 연준에 도로 흡수된 실정이다. 시중에 빠져나간 자금은 1.2조 달러에 불과한 셈이다. 따라서 연준이 보유자산을 축소하더라도, 그 효과는 시중 유동성에 별 영향 없이 초과지준

의 감소로 소화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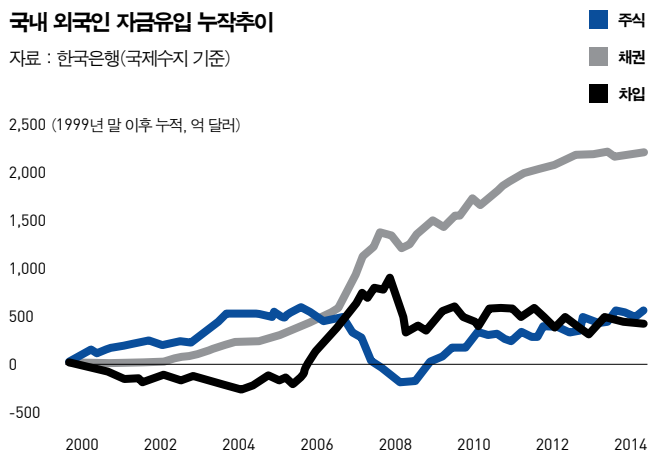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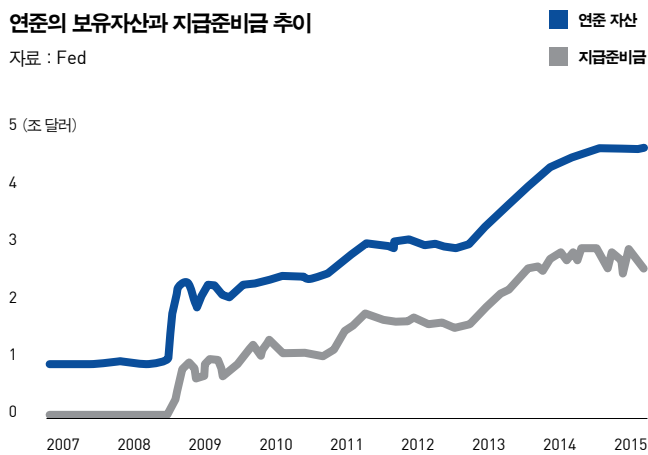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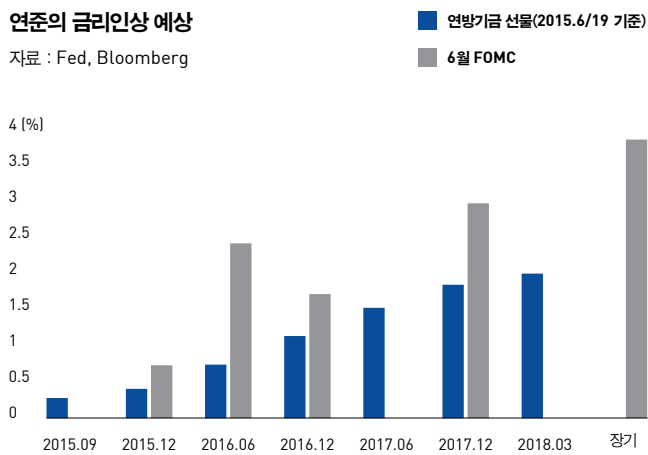
문제는 그 과정이 아직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라는 점이다. 분명 연준은 성급한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의식하면서 지극히 신중한 행보로 금리를 조정해 나가겠지만, 그 향방에 대한 반복적인 불확실성으로 세계 금융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또한 보유자산 축소 역시 초과지준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지만, 꼭 초과지준만 줄어든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연준의 금리인상 혹은 출구전략을 두고 우려가 큰 것도 이런 연유인 셈이다.

테이퍼 탠트럼의 일상화 가능성에 유의해야

제 아무리 신중한 행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각종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만큼, 출구전략과 관련된 연준의 행보에 대한 루머와 예상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도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대내외 금리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연준의 행보가 지극히 신중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막상 시중 금리의 상승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지금은 세계적으로 통화정책 차별화가 유행이다. 가령, 지금 유럽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양적완화만 해도 매월 1,200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미국의 3차 양적완화 규모인 매월 850억 달러를 넘는다. 이런 맥락에서 국제적으로 연준 발(發) 직접적인 금리 상승 압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는 금리의 변동성 증가다.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 연준의 금리 행보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큰 데다 보유자산 축소 계획마저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시중금리가 그때그때마다의 연준의 태도나 행보에 따라 요동을 칠 가능성이 크다. 그 단적인 예가 2013년의 버냉키 쇼크, 이른바 테이퍼 탠트럼(Taper Tantrum)이다. 2013년 봄 연준이 3차 양적완화에 따른 자산매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여가는 방안, 즉 테이퍼링(Tapering)을 고려하고 있다는 버냉키의 발언이 전



해지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는 등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친 바 있다. 그러나 2013년 말 막상 연준이 실제 테이퍼링에 나서면서는 도리어 세계 금리가 하향안정세로 돌아섰다.

세 번째는 국제 자금흐름의 재편이다. 사실 그동안 연준의 대규모 통화부양책으로 인해 신흥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흘러들었다. 그러나 이제 출구전략이 본격화 되면서 이러한 자금의 환류 가능성이 부각된다. 2013년 테이퍼 탠트럼 당시 신흥시장 불안이 고조되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자금흐름의 환류가 무차별적이지는 않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2013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문제는 펀더멘털이다. 외자 의존성이 큰 데다 외채 상환능력이 취약한 국가들이 문제였다. 반면, 비교적 펀더멘털이 양호한 국가들은 일시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하반기 예상되는 연준의 금리인상, 이후의 출구전략은 매 단계마다 2013년과 같은 사태의 재현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금리의 추세적인 상승 여력은 당장에 크지 않지만, 금리 변동성의 증가와 취약 신흥시장의 반복적인 불안으로 테이퍼 탠트럼 2.0, 3.0 등이 이어질 공간이 크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본래 우리나라는 중소 개방경제국의 한계랄까, 대외 불안이 커지면 가장 격렬하게 반응하는 행태를 보여 왔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하면서 점차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향상되는 모습이다. 2013년이 단적인 예다. 초기에는 우리 역시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었지만, 이내 양호한 펀더멘털, 특히 외환건전성의 향상에 힘입어 여느 신흥시장 위기국과 차별화되며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지금도 연준발 금리인상 향방을 둘러싼 불확실성 영향으로 국내 금융시장이 다소 흔들리고 있지만, 예전처럼 민감한 모습은 아니다.

그렇다고 연준발 충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수년새 우리나라에 국제 채권자금이 대규모 유입된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중 절반가량은 신흥시장 중앙은행이나 국부펀드 자금으로서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나머지 자금은 연준발 금리 변동성 충격에 극히 예민한 국제 대형 자산운용사 등에서 나온 것도 사실이다. 게다가 막대한 가계부채 문제나 기업 부실 심화 등 내부적인 위험도 큰 상황이다. 아마도 우리 경제나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이처럼 연준발 충격의 매 고비마다 거듭 시험을 거칠 가능성이 크다.

주택시장의 세대교체 본격화되나

최근 3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구입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 신규분양시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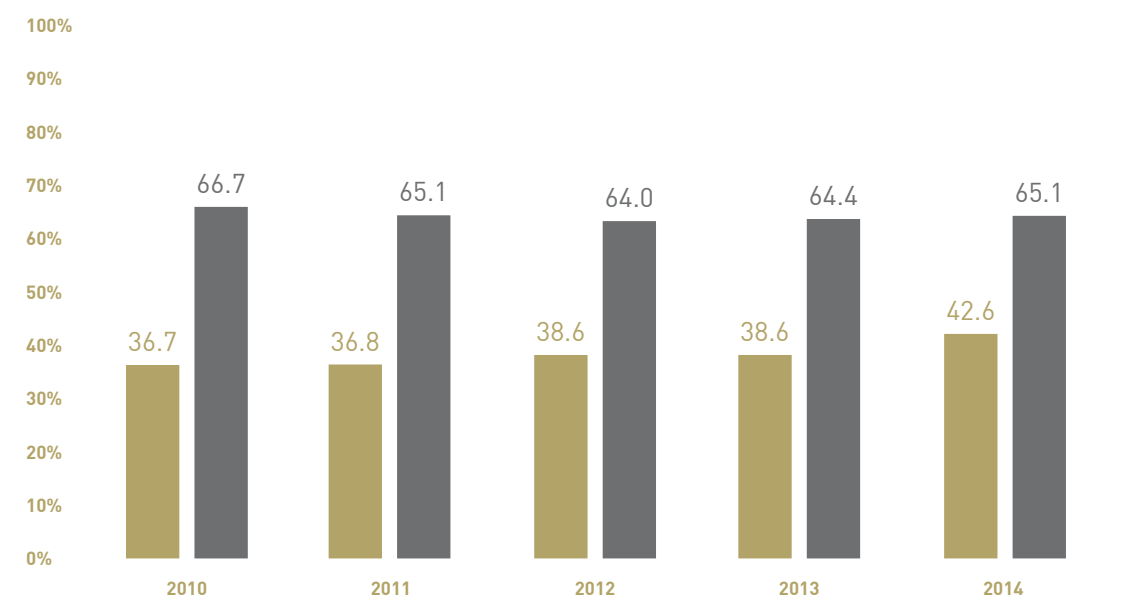
저금리로 인한 전월세 전환과 유리해진 주택금융 이용여건의 영향이 크다.

주택시장의 세대교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인가?

3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매입 비중이 빠르게 확대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개인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국내 주택소유자 1,240만 명 가운데 30대 이하 소유자는 212만 명으로, 전체 주택소유자의 17%에 불과하다. 이는 40대 이상 연령층이 국내 주택수요의 주력 계층으로 시장의 흐름을 주도해 왔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최근 들어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예년의 2배를 웃돌 만큼 활발한 주택거래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나 30대 이하 연령층의 주택구입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어서다. 한국은행이 전국 295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서는 올해 주택구입자의 25.5%가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23.1%에 비해 2.4%p나 증가한 수치인데, 같은 기간 40대의 비중은 비슷하게 유지된 반면 50대 이상의 비중은 오히려 하락했다. 한편 30대 이하의 주택구입이 증가하면서, 이들의 주택담보대출 차입 또한 뚜렷이 늘고 있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 가운데 30대 이하 차주의 대출 비중은 최근 1년 사이 2%p 증가하였는데(2014.2월말 20.7%, 2015.2월말 22.7%), 동 수치가 장기간 취급된 대출이 누적된 잔액 기준임을 감안하면, 실제로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 신규차입은 훨씬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 자가 거주 비중(%)



• 자료: 통계청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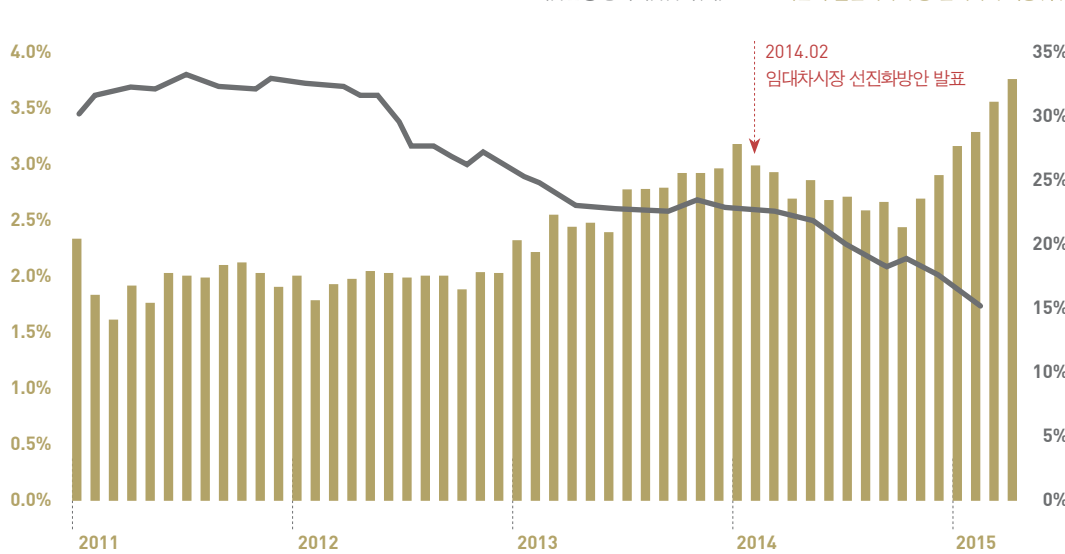
수도권 신규분양시장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

주택시장에서의 청장년층의 약진은 수도권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의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내 주택거래 가운데 30대 이하의 주택구입 비중은 지난 반년 사이 4.4%p(2014년 하반기 22.3%, 2015년 1~5월 26.7%) 늘어나 전국기준 2.4%p에 비해 더욱 확연한 증가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총 18개 단지의 청약당첨자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30대와 20대 이하의 비중은 각각 38.4%, 9.6%를 기록했다. 4월 한 달 동안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 만여 채 가운데 청장년층이 절반 가까이를 사들인 것이다. 반면 과거 주택청약의 주력 층이었던 40대의 비중은 27.7%로 30대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 다시 말해 수도권 신규분양아파트를 중심으로 청장년층의 주택구입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주택수요의 중심축이 과거 40대 이상에서 30대 이하로 점차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저금리로 인한 전월세 전환과 유리해진 주택금융 이용여건 탓

이렇듯 젊은 세대들이 대거 주택구입에 나서기 시작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기존 전세임대인들이 반전세나 월세를 선호 하면서,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데 있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정기에금 금리는 금기야 1%대로 떨어 졌다. 예금금리 인하는 전세임대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의 운용수익률 하락을 의미하는데, 보증금 반환여력이 있는 주 택소유주들이 전세를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전세 공급은 빠르게 줄어들었다. 과거 오피스텔이나 지방의 소형 아파 트에나 적용되었던 월세관행이 수도권 고가의 아파트 임대방식에도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거래 비중은 2013년 20% 내외에 불과했으나, 2년 만에 34%까지 치솟았다. 생애주기상 신규가구를 형성 할 시점의 청장년층이 지금껏 전세를 사다리 삼아 자가 거주로 옮겨간 것과 달리, 이제는 가구형성 시점부터 월세와 자 가 구입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 것이다. 여기에 역대 최저수준의 주택담보대출금리와 잇따른 주택금융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과거에 비해 보다 유리해진 주택금융 이용여건은 젊은 세대의 주택구입을 더욱 부추겼다. 사상초유의 저금리가 전세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끼쳐 주택시장의 세대교체를 불러온 것이다.

예금금리와 월세거래 비중



주 : 대책 내용 중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방안이 포함되면서 주택월세 임대인의 과세강화 우려 대두

자료 : 서울시, 한국은행

주택시장 내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신호탄

국내 주택가격은 과거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가파르게 상승해 왔으나, 최근 몇 년 사이 가격 상승세가 점차 둔화되면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주택소유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거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자산축적에 성공한 이전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는 이미 높은 주택가격으로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를 더욱 강하게 의식한 결과 자가 소유 보다 임차거주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어졌다. 실제로 과거 행해진 설문조사를 보면, 전 연령층에 걸쳐 '주택소 유가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줄어드는 가운데, 특히 30대 이하 연령층에서 이러한 응답비중은 더욱 낮게 나타났다. 그 런데 이러한 주택소유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장년층의 주택구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저금리의 여파로 전세대안이 배제된 상황에서, 월세와 자가를 두고 결국 자가를 택한 것이다. 이렇듯 젊은 층의 주택구입에 있어 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 저금리로 인한 전월세전환임을 고려하면, 이제 막 시작된 주택시장의 세대교체는 향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미국 발 금리인상으로 일시적인 속도조절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추세적 저금리와 상대 적으로 높은 월세임대수익률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 전세관행의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세금 다이어트 답은?

적립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 가입자가 자유롭게 부담금을 납입하고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 적립IRP 하나은행에서 만나보세요



W 가입효과

- 납입금액 (연간 700만원^주 한도) × 13.2%(지방소득세포함) 세액공제 (2015 세법개정)
-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 ▶ (현행) 연금저축 + 퇴직연금 400만원 → (개정) 400만원 + 퇴직연금 별도 한도 300만원

EX	구 분	연금저축	퇴직연금	공제금액
납입금액		0원	700만원	700만원
		200만원	500만원	700만원
		500만원	200만원	600만원
		700만원	0원	400만원

주) DC근로자가납입분 + 적립IRP납입분 + 연금저축 납입분 합산 기준

W 가입대상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IRP가입자
- 퇴직IRP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 ※ 납입한도 : 연간 1,2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DC 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함

W 운용상품

- 원리금보장상품 (정기예금) : 하나은행 퇴직연금 정기예금 6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 외 다양한 타금융기관 상품 제공
- 집합투자상품 (수익증권) : 적립금운용위원회에서 엄선한 12개의 자산운용사의 44개 수익증권 제공

-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금(원리금보장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모든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운용방법을 집합투자상품으로 선택하시는 경우, 집합투자증권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원금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 집합투자상품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 펀드를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매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외화표시자산의 경우 투자대상국가의 정치, 경제상황에 따른 위험 및 환율변동에 따른 외화자산의 투자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 ※ MMF의 경우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가 ±0.5%이상일 경우 기준가격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위 세제관련 사항은 향후 관련 법률의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홈페이지 (pension.hanabank.com) 또는 영업점에 문의해 주세요.

지구인이야기 - 싱가포르

시니어의 어려움

“시니어에게 물어봐”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국가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인력을 줄이는 대신,

시니어 인력을 획기적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다.

특히 시니어들이 겪는 어려움을 시니어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콜센터에서 시니어 고객은 상담사들이 선호하는 고객은 아니다. 청력이 약하거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등 나이 든 고객은 상담사들에게 피하고 싶은 어려운 고객인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싱가포르에서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다. 시니어 대상 IT콜센터의 상담원을 시니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한 것이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처럼 시니어의 마음을 시니어들이 더 잘 이해해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며 시니어들의 마음을 잘 아는 시니어 인력 활용의 긍정적인 측면도 크다.

이들은 중국어 방언에도 능한 시니어들인데, 젊은 상담원보다 참을성이 많고, 영어가 서툰 노인들과도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특히 IT기기를 사용할 때 겪는 사소한 문제점도 잘 알고 있어서 시니어들을 위한 전문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경우도 전문 전화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서 매력적인 요소다.

세대 간

정보기술 능력

격차를 줄여라

시니어 콜센터는 싱가포르 정보통신개발청(IDA)과 싱가포르 시니어 자원봉사조직(RSVP, Organisation of Senior Volunteers), C3A(Council for Third Age)와의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RSVP와 C3A모두 시니어 인구의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콜센터 운영 내용은 실버 인포콤데이(Silver Infocomm Day)라는 시니어 IT 교육행사 때 발표됐는데, 2007년부터 매년 열리는 실버인포콤데이 행사는 3~4일간 운영되는데, 시니어의 정보기술능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주요 프로그램은 컴퓨터 활용 트레이닝 코스와 세미나로 구성돼 있다. 2013년 8월까지 7만7,000명 이상의 인원이 관련 프로그램을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이 행사 진행에 있어서도 시니어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두드러진다. 행사 자원봉사자 중에는 지난 시기의 실버인포콤데이 행사를 통해 교육을 받은 시니어들도 많다고 한다. 최근 행사의 경우 참가한 프로그램 트레이너 중 70%가 시니어였으며 이들은 자신이 배운 기술을 같은 세대와 공유하면서 공동체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싱가포르 정보통신부 부장관은 “정부는 시니어들이 IT지식과 기술을 갖추어 더욱 독립적이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도와줄 것”이라고 전했다.



본문 참고자료: KOTRA 싱가포르 무역관 자료 종합

시니어 인력활용,

긍정적

효과 기대

싱가포르 노인인구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일본과 한국을 제외하면 아시아 최고 수준이다. 싱가포르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98년 6.8%에서 2010년 9.0%로 증가했다. 203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지금의 세배로 늘어나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활동적인 사회활동을 하던 베이비 부머 세대가 시니어 계층에 합류함에 따라 싱가포르의 시니어는 과거의 이미지와는 달라지고 있다.

또 현재 싱가포르인 65세 이상 절반 정도가 85세까지 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반해 출산율은 2012년 1.29를 기록해 2011년의 1.20보다는 크게 상승했지만,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수준인 2.1%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니어 전용 IT콜센터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일 뿐 아니라 시니어 인력 활용에도 긍정적이다. 시니어들은 좋은 기술과 풍부한 경험이 있지만 사회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니어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공동체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은퇴 후 제주도

직장생활을 하며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

은퇴 후,

이제 살고 싶은 곳에서 살아가는 자유를 만끽해보자. 많은 이들이 꿈꾸는 그 곳, 은퇴 후 제주도.

시원한 바닷바람, 거칠고 투박하지만 섬사람들의 인심 등 일상의 공간을 넘어 힐링의 공간인 제주도를 꿈꾸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곳으로 ‘제주도’는 1위를 차지한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과 함께 시작하는 인생 2막은, 도시에서의 빠른 삶 대신 자연으로, 시골로 돌아가 느리게 사는 삶을 꿈꾸는 이들의 로망과도 같은 곳이다.

봄에는 제주대 들머리길, 왕벚꽃터널, 여름에는 울창한 수풀과 현무암의 절경이 뛰어난 돈내코 계곡, 가을에는 제주 역사길, 겨울에는 한라산과 같은 멋진 자연 풍광 외에도 들불축제, 고등어회, 고사리 육계장, 문어 작살 낚시 등 제주 사람들만 아는 맛과 멋, 투박하지만 온정이 넘치는 독특한 생활 풍습은 제주도의 색다른 매력에 빠지게 만든다. 하지만 몇 일간의 여행이 아닌 그곳에서의 현실은 녹록치 않다. 제주이민의 속내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는 것을 권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로망만 가지고 제주에 내려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도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객관적인 시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What?

제주도에서의 생활. 과연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카페, 게스트하우스, 도서관, 레스토랑, 민박집, 감귤농장, 케이크가게, 노인요양시설, 부동산 등 선배 이주자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하고 정착에 성공했다. 이들은 말한다 ‘누구나 먹고 살 수 있다!’

Where?

제주도 어디에서 정착할 것인가? 바닷가에 그림 같은 펜션을 꿈꾼다면 그만큼 재정이 밀박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처음부터 집을 사거나 짓지 말고, 최소한 1년 정도는 집을 빌려서 살아보라고 권한다. 무작정 시골보다는 제주시, 서귀포시 근처로 집을 구하는 것이 고립감을 덜고 적응하는데 수월하다.

How?

제주 정착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채널에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정착한 사람들의 경험담이 살아있는 정보가 된다. 웹사이트도 참고할만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영하는 ‘제주살기’에서는 제주도로 이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한다. 주거 문제에서부터 취업, 육아, 문화, 교육, 건강 정보는 물론 창업, 귀농, 문화 예술 등 분야별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수록하고 커뮤니티도 꼼꼼히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제주이민 관찰기인 ‘제주에 살리라(청어람미디어)’, 제주정착이야기 ‘제주 보헤미안(시공사)’, ‘제주도 살고 싶다(시공사)’, ‘제주로망주의보(SOMO)’ 등의 도서도 참고할만하다.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한 은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은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은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은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은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K는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12층 | TEL. 02-2002-2220 | FAX. 02-2002-2610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카드